

— 어릴적 상이한 화의 김선정

— 지리산 네트워크 활동가 정태연

— 구례수해시민대책위원회 김창승·정영이



— 노래하느님 옥수수 김주혜

구례수해 이야기

# 속도 없이 쓰담쓰담

— 정아마미에 최아리

— 김민하의 생활 안락장

— 구례설지아 이룸 조합원 이선경



— 정이현과 김민하가 여덟 번째

현관앞 비상배낭



## Contents

| 서문 |

경주에서 구레가는 길 2

| 추천의 글 |

디딤돌과 화살표 7

김탁환(소설가)

| 추천의 글 |

가슴으로 만나는 ‘두 번째 이야기’ 추천합니다 8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멤버 / 심리사회지원활동가 신정식

| 느긋한 쌀빵 안영삼님 인터뷰 |

느긋한 피해자, 절실한 목격자 10

| 오일장 상인연합회 김선정씨 인터뷰 |

누구나 그렇지는 않다 22

| 구레섬지아이쿵 조합원 이선경씨 인터뷰 |

그때, 그 언니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36

| 구레수해시민대책위원회 김창승·정영이 공동대표 인터뷰 |

섬진강이 그어놓은 마음 속의 선 하나 42

| 영유아모임 최아리씨 인터뷰 |

우연히 발견된 그러나 늘 존재해온 문제들 58

| 지리산 네트워크 활동가 정태연씨 인터뷰 |

물길도 사람길도 막힘이 없도록 68

| 노래하는 옥수수 김주혜씨 인터뷰 |

확고한 시스템은 무력했고 납작했던 이웃들은 다채롭게 다가왔다 80

| 재난 구호 현장 코디네이터 이동환 이사 인터뷰 |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98





## 경주에서 구례가는 길

### ‘재난은 기시감이다.’

책을 정리하는 원고를 써야하는데... ‘10.29 헬러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난목격자가 되고 숨은 피해자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과 오늘의 일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없이 쓰고 담으며 굳이 과거를 들추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례 수해는 2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6년 전 경주 지진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고, 어제의 ‘10.29 헬러윈 참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진국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어난 일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을 때 실체가 보이고 그 너머로 회복과 감재가 가능하겠지요.

### 이 글은 구례 수해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넘친 이야기나 땅이 잠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9명의 인터뷰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의 수해를 만났고, 어떻게 다가갔으며 무엇으로 헤쳐나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개개인의 경험이 기록으로 남을 때 그 과정을 통해 작으나마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닦칠 수 있는 다른 재난에 대응할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재난 이후 회복 프로그램’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 인터뷰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구례에서 진행했던 목욕 봉사나 식사 지원, 긴급한 살림 나누기 등의 구호 활동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외부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긴급함을 앞에 두다 결국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수해만 보고 돌아갔다는 반성을 하게 됩



니다. 수해 1년 후, 재난 현장에서 타인을 돕는 리더의 역할로 협력했던 분들에게서 전해 들은 하소연 섞인 소회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했으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재난의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어 피해 액수나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남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물이 들어오던 수해의 장면, 그 물에 뛰어들고 젖어 포크레인 한 삽으로 떠져 트럭에 실려 가 버린 그 기억들을 찬찬히 응시하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이 얼마나 다른 모양이며 그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혹은 보여지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덩어리일 뿐인지. 지금쯤은 우리에게 다시 그날을 응시해 볼 눈과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재난의 목격자는 피해자이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재난 대응의 열쇠입니다.**

**재난은 항상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로만 남아 잊혀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겪고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구레 사람들도 수해 당시에 비해 1년, 2년이 지난 후 자기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지리산 자락, 섬진강 변 삶의 터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달라졌겠지요. 그 변화의 이유와 과정이 이 인터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수해 이야기를 그만하자는 말속에 숨겨진 트라우마와 고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에 생기는 물리적, 지리적 고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립이 더욱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걸 겪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와 연결하고 그 안의 이슈들을 계속 나누며 외부에 지지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밖에서 보는 시선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구레 수해 이야기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접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입니다. 울진 산불 현장이나 고성 산불 피해지역의 이재민들 역시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패닉을 호소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벌써 6년이 지난 경주 지진의 이야기를 매해 9월이면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뽕뽕 싸매어 넣어 두는 거지요. 섬진강 독처럼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이 글을 통해 하나씩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기자의 시선처럼 화제성 위주의 기록물이 재난의 기록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당사자들의 시선과 기억이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날 한 시에 갑자기 일어난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의 기록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 **기후재난의 시대, 인간답게 사는 것,**

‘기후의 위기’라고 쓰고 ‘인류의 위기’라고 읽습니다.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후 위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재난은 예상 밖의 규모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터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 어떤 분은 재난 시 공공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며 사람만이 답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또 다른 분은 공동체와 사람만을 믿을 수는 없으며 시스템을 촘촘하고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두 이야기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있으며 이 문제가 가리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답을 풀어 가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동네 구례에서 수해라는 재난을 겪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챙겼던 마음들이 그 답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날,  
현관앞비상배낭 윤정임, 정미정, 정꽃님

## 디딤돌과 화살표

‘물난리가 났었다’로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곡성에서 구례까지 오가노라면 지금도 곳곳에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다. 강 가운데 섬들이 나란하고 버드나무들이 자생하여 강 습지를 이룬지 오래였다. 강둑은 높고 강물은 고요하며 들녘은 풍요롭고 마을은 정겨웠다. 해마다 장마 때는 비가 여러 날 많이 내렸지만, 강둑을 넘어 들녘과 마을을 덮친 적은 없었다.

이 책은 그날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구례에서 농사를 짓고, 빵 가게를 하고, 오일장에서 일하고, 영유아를 위한 모임을 하고, 수해 극복 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이다. ‘폭우 때문에 일어난 물난리’라는 막연한 규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진다. 섬진강 댐이 꼭 그렇게 많은 물을 방류해야 했을까? 오일장이 전부 잠기는 것만은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 수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는가? 정부는 수해 극복을 위해 합당한 활동을 펼쳤는가?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건도 사람도 잊히지 않는다. 이 책은 구례 수해를 되돌아보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재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화살표다. 꼼꼼히 읽고, 물려드는 강물과 그 속에서 함께 살고자 애쓴 이들을 떠올려보자.

- 김탁환(소설가)



## 가슴으로 만나는 ‘두 번째 이야기’ 추천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재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일 겁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주로 공공기관, 재난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들이고 그 내용은 피해, 고통, 정부 대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회적 담화는 때론 책임공방 속에서 피해자와 책임자를 가르는 이분법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계속 듣다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이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져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뉴스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 자기 정의, 고난 속에서 걸어 올린 심리적 사회적 성찰과 제안들에 귀기울이자 재난을 마주했던 사람들의 삶이 좀 더 가슴으로 공감되었고, 다양한 관점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트라우마에 대한 무력감은 글을 읽어가면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에도 주의를 두게 되었고, 공동체를 통해 ‘지지만고, 회복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의 마음으로 자연스레 이동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특별함은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터뷰어들은 NGO의 재난구호활동가이기 전에는 경주 지진을 경험했던 평범한 주민들이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난 재난을 통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지키고 돌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심은 이제 자신의 안위와 지역을 넘어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구례의 주민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의도를 마음을 느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원단체의 지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차원의 주체적 대응과 돌봄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을 발행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은 고정화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라는 현재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의미는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가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구성할지는 당사자들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제안을 경청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때 재난에 대한 공동체적 지혜와 역량은 재난 이전보다 더욱 커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기록한 책의 마음과 내용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멤버 / 심리사회지원활동가 신정식



## 느긋한 피해자, 절실한 목격자

정리 / 정미정

저희가 임시주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취재하러 오는 언론사가 있어요.

1년쯤 지나고 인터넷 기사에 댓글들을 보니까 ‘저 새끼들은 아직 저기 사냐? 일년이 넘었으면 복구를 해도 서너 번은 했겠다. 저 거지 새끼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진정성이 없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성 회복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선생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영삼이라고 합니다. 2011년쯤에 귀농을 했어요. 한 10년 조금 넘었나요.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에 살다가 오랫동안 구례로 내려올 생각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더 이상 도시에서 꿈을 꿀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내려오게 됐죠. 처음에 내려와서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서 농지를 사서 조금씩 깨작깨작 농사를 짓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만족까지 얻는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고요.

처음에 구례에 오실 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오셨을 텐데, 생각지 못한 수해를 만났군요.

저희는 집과 조그마한 상가 두 군데가 다 침수가 됐는데, 집과 상가 모두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급작스럽고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었죠. 아침 6시에 옆 지기가 빵집에 출근을 해야 해서 6시 전에 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는데 일부 도로에서 차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아서 출근을 시키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있는데 대피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도로까지는 물이 안 들어오고 도로 옆에 논밭에 찰랑찰랑할 거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집이 도로와는 턱이 있고 1미터 정도 거리도 있어요. 물이 도로를 넘어서 문지방을 넘어서 문턱을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 본체하고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만 들고 차 끌고 나왔는데 결국 집에서 건진 건 그 두 개가 전부죠.

대피했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도로는 다 봉쇄가 되는 바람에 윗마을 쪽으로 해서 돌아서 고지대로 내려가서 다시 집에 가봤더니 이미 허리 쯤까지 물이 차 있어서 잠수해서 들어갔어요. 저도 그렇고 옆지기도 그렇고 몇십 년 작업한 것이, 특히 옆지기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라 디자인 한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USB, 외장하드 다 사라진 게 타격이 크더라고요. 사진이며 일기며 모든 지나온 시간들의 기록이니까. 다른 재난 같으면 그런 것을 일부 건질 수 있었겠지만 물에 잠긴 수해여서 그게 제일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상가도 다 잠겼죠. 상가에 그림 비슷한 것을 전시를 해 놔있거든요. 그런 게 다 떠내려 갔으니까 세월을 통해서 애를 썼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제 집은 냉천리인데 지붕만 남겨놓고 잠겼어요. 나중에 물 빠지고 갔더니 지붕에 동네 향아리들이 다 얹혀 있더라고요. 누구 향아리인지 모르지만 향아리 좋아하는 분들 나눠줄 때는 좋더라고요. 달 향아리 이런 건 비싸잖아요.(웃음)

#### 이후 상황은 어떠했나요?

우선 시각적으로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수해를 입으면 쓰레기 산이 양쪽 도로변으로 터 널처럼 생겨요. 그리고 썩는 냄새가 한 4~5일, 그리고 일주일쯤 되니까 여름에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고요. 사람이 쓰는 물건이 저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저는 시각적으로는 그게 아직 기억에 남아요. 온 동네 도로마다 쓰레기 산이 있었던 모습. 물론 저희 집도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문 앞에 거의 집 한 채 정도의 쓰레기가 있었죠. 젖은 것은 복구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냉장고 하나 건졌어요. 새 냉장고였거든요. 일일이 나사 풀어서 다 씻어가지고.

그리고 구례에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비닐하우스는 난방용으로 병커C유를 써요. 그 비닐하우스 앞에 큰 연료통들이 다 넘어져서 병커C유가 물결 따라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 기름만 남기고 간 거죠. 모든 물건에 기름이 묻어 있고 집에 기름이 다 묻어서 기름 냄새 빠지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후유증이죠.

#### 그럼 복구 기간 동안은 여기 빵 가게에서 지내신 거예요?

여기 빵집에서 지내다가 다음 날인가 체육관 같은 대피소 있잖아요. 이재민 텐트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다녔는데 이미 꽉 차서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대피소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는 아직 젊은데 어르신들 자리 뺏아서 가위바위보하고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 집에서 좀 유숙하고 빈 집 찾아서 두 달 정도 있었겠네요.



그때는 큰 재난이라서 공무원도 사리 분별이 어렵고 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어요.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서. 지내는 건 지인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지낼 수 있었고 먹는 건 온 동네에서 조그만 급식소를 차리고 읍에는 서너 군데 있고 해서 오히려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힘들어하셨죠. 물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고, 빗소리에도 놀라고. 마침 저도 구례에 소식지라는 게 있어서 수해 때 여기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수해 입었던 분들을 동네별로 다 만났었어요.

제일 기억나는 분은 양정 마을에 소를 키우는 분인데 축사에는 여물통이 있고 칸칸마다 소가 있는데, 몸을 돌려서 똥을 여물통에 싸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몸을 돌리는 소들은 묶어놔요. 몸을 못 돌리게 양쪽으로. 그런데 물이 들어오고 나서 어르신이 급하게 나가시다가 묶어 놓은 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축사 진입로가 허리춤까지 물에 잠겨서 헤엄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 묶은 줄을 끊어주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셨대요. 밤늦게 물이 옥상 바로 밑까지 차올랐고 소들이 뚱뚱 떠다니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열 몇 마리를 건져 올리셨대요. 밧줄로 목을 걸어서 당겨가지고 옥상으로 올렸죠. 그중에 한 마리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송아지를 잃어버려서. 난간에서 물로 뛰어들려고 하도 그래서 말리다가 엉덩이를 툭 쳤더니 그냥 풍덩하고 송아지 찾으러 가더라고요. 결국 그 두 마리 다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옥상으로 소들이 다 올라가서 물이 빠진 다음에도 옥상에 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붕이 허술하니까 지붕이 무너지면서 소가 집 안으로 떨어졌는데 한 마리는 거실, 한 마리는 화장실, 한 마리는 안방에 떨어진 거죠. 소를 꺼내려면 벽을 부숴야 되는데 집이 아까우니까 크레인으로 소들을 달아서 올렸대요. 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부수고….

특히 양정 마을은 그냥 스티로폼이 떠다니는 바다였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바다를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같은. 여기가 다 바다였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아마 트라우마 있는 분들은 밤바다 같은 걸 무서워하실 거예요. 깜깜해서 탈출도 못하고 물 위에 떠 있었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클 거예요.

실제 선생님이 겪으신 복구 과정은 어떠셨어요.

첫날 갔더니 가재도구가 떠 있다가 가라앉았고 나무 같은 건 물먹어서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옷, 이불들도 그렇고. 그리고 빨과 기름이 섞여 있으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몇 개는 씻는다고 칫솔로 씻고 있는데 삼 일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순천 의용소방대원들이 냉천 마을에 백 오십 분이 오셨는데 조끼를 입고 골목으로 흩어지는데 저희 집에 한 일곱, 여덟 분이 오셨어요. 젖은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순식간에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 소방대원들께서는 식기 몇 개라도 건져야 된다고 또 닦아주시고 그렇게 만나질 봉사 해주시는데 글썽 그 느낌이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반갑구나’ 수백 명이 와서 온 마을을 도와주고. 그 빨간색 조끼가 기억이 나요. 지인들도 한 열 분 모여서 다 닦아주시고 물차 있는 분들은 고압 세척기로 씻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복구가 빨리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도움들 워낙 컸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도 다니시면서 다 임시로 전기 설비해 주시고 행정부나 지자체의 능력보다는 민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은 좀 어떠세요? 2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된 것 같은지요?

저는 아직 젊고 긍정적이어서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트라우마가 덜 하죠. 그래도 이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를 보면 옛날 느낌이 아니에요. 자연환경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졌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산불 피해 지역 구호도 가고 다녀보면 재난 이후 공동체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농민운동하거나 시민활동하던 분들이 대책위에서 앞장서기는 했죠. 애쓰면 애쓰는 만큼 또 싫어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도 일리 있는 주장들이 있어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친해지고 동지가 되고 연대가 생기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양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하우스에서 열흘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고 봉사했던 분들 아직도 만나고 다니시고. 보이지 않는 좋은 점들은 그런 것들은 얘기들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해 전에 '내가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후회까지는 아니에요.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혹시라도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올 거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서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 코드 뽑고 차단기 내리고 등의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생각 말고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어'라고 1%만 생각했으면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1%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상 배낭 같은 것을 미리 꾸려야 되겠다'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설마 또 오겠어? 훈련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내일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 요거 요거는 꼭 가져가야지. 뭐,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물건 보면 똑같은 수해나 다른 재난이 있을 때 내가 저걸 가져갈 물건인가 그냥 놔두고 갈 물건인가를 생각하죠. 수해가 난 다음에 좀 편해진 건 물건이 다 없어지니까 조금 몸이 가벼워진 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버렸으니까.

수해 재난 이후에 나의 삶의 어떤 시각이나 태도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좀 이제는 조금 달리 봐야겠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달라졌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구비하거나 사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배 한 분은 집에 목재를 사다가 가구를 만들었는데 물에 잠겨서 다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 철재로만 사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굳이 필요 없는 물건 없이 간소하게 사는 게 좋은 거 같고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비우고 사는 거 그리고 고성 산불 이후에는

또 집들을 다 벽돌로 지으셨어요. 불에 타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진이 날까 봐 물건을 선반에 잘 올려두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의 변화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일단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깨지면 그만이고 없어질 수도 있고.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1~2년을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니까 '몇 달을 살아도 좋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죠.

또 안락한 집이 무서워졌어요. 여진에 내가 자는 동안 집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집 저집에서 살았어요. 구례에 자가 집이 없어요. 냉천리로 이사를 간 것도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수해를 입는 거예요. 수해 전에 저희가 자비로 임대 집을 수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했더니 집주인이 애썼으니까 한 5년 세를 안 받겠다 했는데 앞집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담도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문 열면 바로 큰 도로인 거죠. 우선 정이 안 가고 그렇다고 저희가 남의 집에 담을 수리하기도 그렇고 돈이 있다고 해도 고칠 생각이 안 드는 게 일종의 난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여기는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야 계속 살 수 없어.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가야지. 불안해.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불면증도 좀 있고 집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아늑하지가 않고, 저희는 또 대문도 없고 담도 없고 이러니까 좀 개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 불쑥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웃음)

얼마 전에 수도권에 수해가 좀 크게 났었잖아요. 수해를 겪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전달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직장이 강남역이었는데 2011년인가요? 오세훈 시장 때 제가 수영해서 출근했었거든요. 강남역을 지나가는 길이 출근길인데 버스 타고 가다가 차 내부에 물이 차니까 강남역 앞에서 버스가 멈춘 거예요. 승객이 모두 강제 하차를 했죠. 회사까지 걸어가는 중에 완전히 침수가 돼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간신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똥물을 해엄쳐서 간 것, 빌딩 정화조에 넘쳐흐른 것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 이걸 참 어찌해야 할까요, 자연 재난을. 양정 마을 같은 곳은 제방이 없을 때는 상시 침수 지역이거든요. 제방을 70년대 증축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제방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다 침수돼서 농사가 잘 된다는 땅이었거든요. 땅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우스 하고 그다음에 소 키우고 저는 일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어쨌든 10년, 20년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위험을 담당하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기타 등등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데 1차는 인간의 욕심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인간이 일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주 지진부터 시작해 한국에 계속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재난들이 지역을 달리하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정부와 시민 공동체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매번 패닉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구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나 민간의 역할 분담이나 서로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해 나고 우선 정치인들도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가들은 더 많이 다녀갔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진정성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이외에는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으면 시스템은 조금 느슨해도 그런 진정성으로 당연히 다 메꾸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행정, 정치, 국가 시스템도 중요한데, 그들이 진정성이 있으면 공백이 당연히 메꿔지지 않을까. 시스템

을 만들어봐야 어차피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한 두 번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언정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진정성이 없으면 언젠가는 또 느슨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중에 정말 안타까워서 수해 현장에 나가서 그 쓰레기 치웠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더하겠죠. 그걸 회복하면 저는 시스템은 조금 느슨해도 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어야지만 행정이나 정치가들이 수행할 시스템을 만들겠죠.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이행할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 나와서 현장에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깨작깨작하면 방해만 되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수해 나서 흙 많이 묻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칫솔로 씻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그렇게 수백 명이 온다고 한들 그리고 매뉴얼대로 또는 그 시스템대로 한들 언 발의 오줌 누기나 똑같죠.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어'라고 1%만 생각했으면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1%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역할을 나누어야 될까요?

수해를 입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해를 입었을 때의 행동 요령 이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없어질 물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없고. 나는 방수 가방이라도 마련해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죠. 어쨌든 정보가 없더라고요. 국가가 할 일은 다 사후인 거고 댐 관리라든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국가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웃음)

아예 기대가 없으시네요. 국가라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고 그걸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구례 지역에 다니다 보니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결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자원봉사를 좀 다니고 그랬는데 저 운동장 체육관에 각지에서 모아놓은 의류나 구급품을 쌓아놓은 것을 분류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는 옷이 높게 쌓여 있어서 고를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걸 건져 낼 수가 없어서. 옷, 가방 기타 등등 새것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는 옷을 자주 사 입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 백화점보다 많은 옷을 양을 보니까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옷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시스템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다 세탁해서 쪽지에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별로 입지 않은 것들입니다’, ‘좀 오래된 옷이지만 새것입니다’, ‘쓰던 수건들도 걸레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산더미였어요. 저는 어떤 시스템보다 ‘사람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보 격차 때문에 ‘평소에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분들이 재난 상황에서 훨씬 많이 고립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떠셨나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어르신들은 옷도 없는데 일일이 다 배달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다 가져다드리긴 했는데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나오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또 욕심 많으신 분들은 또 가져가고 한 곳에 또 몰리고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 조직의 그런 체제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마을에 조그만 창고라도 해서 재난지원 보급소 재난지원 물품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물류 창고 같은 것들. 썩지 않는 것들은 상비하고 나중에 재난이 실제로 생겼을 때는 오는 물품을 보급할 수 있는 거점 같은 게 각 마을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재난이 생겼을 때 마을 회관을 재난 보급 물품 보관소로 쓰고 인구 대비해서 정확하게 배분해야 한다든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기동하게 만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임시주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끔 취재하러 오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인터넷 기사에 댓글들을 좀 보니까 ‘저 새끼들은 아직 저기 사냐? 1년이 넘었으면 복구를 해도 서너 번은 했겠다. 저 거지새끼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진정성이 없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성 회복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최소한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애정을 가지고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역지사지의 태도도 좀 가지면 좋겠다가 제일 먼저예요. 정치인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자체 공무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제일 고마웠던 분은 돈 모아서 보내준 지인들이죠. 여기 구례에서 지인들이 도와주고 또 도시에서 알던 분들이 모아주고.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수해가 수혜’였다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사실 현금이 제법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 저것 수리하는데 다 들어가



고 뭐 사는 데 다 쓰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만 그 아픔이 느껴지고 방어할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타인의 삶에 대한 애정’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난을 겪어보니까 어떨 때는 상처받고 어떨 때는 고맙고, 어떨 때는 부족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대략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건조하구나. 바쁘구나. 힘들구나. 역시 인간은 혼자야. 혼자 건너야 될 사막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혼자라는 애씀이 덜 할수록 가장 좋은 재난의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안영삼씨가 있는 느긋한 쌀빵을 방문했다. 가게 한쪽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했다. 오일장 근처가 아닌 시골 동네 한가운데에 빵집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과연 여기까지 빵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인터뷰하는 내내 다른 한쪽에서는 쌀빵이 구워져 나왔고 많은 단골들과 여행객들이 빵을 사러 왔다.

집과 가게가 모두 물에 잠겼다는 사연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내내 웃으면서 인터뷰가 이어졌다. 수해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피해 입은 분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는 답을 듣고 나니 가게 이름만큼 참 느긋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분이다 싶었다. 그리고 ‘삶에서 꾸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해 피해보다는 오히려 재난피해자에 대한 댓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였다.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 생각났다. ‘자유와 독립과 자아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그 대가로 이런 쓸쓸함을 맛보아야만 하겠지요.’ 그 쓸쓸함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터뷰 기록이 그 쓸쓸함을 조금이라도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리 / 정미정

## 누구나 그렇지 않다

정리 / 정미정

상인분들이 다 대피했는가 궁금해서 주무관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주무관님. 상황실에서 CCTV 보시고 우리 상인분들 없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두 명인가 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정자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선정씨. 선정씨도 물에 잠기면 큰 일 나는데. 수영하실 줄 아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떠나려가 버리면 안 된다”고 들어간단니까 그때 할머니가 다행히 밖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8월 8일 날 수해 나고서 42일 만에 쉬어봤어요. “회장님 하루만 쉬고 나올게요” 하니까 “쉬어라. 그동안 안 쉬었는데.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 구례오일장 사무장, 김선정을 소개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청년 일자리로 구례오일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2020년에는 군청에 일자리 사업이 없어서 봉사하는 걸로 하고 일을 도왔어요. 상인회에 애정이 있어서 장날에만 나와서 도우기로 했는데 당시에 수해가 났던 거죠.

### 이제 좀 잊고 싶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구와 보상이 진행됐는데 주민들도 빨리 잊고 싶어 하고 저 역시 잊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신없이 많은 일이 진행됐고, 저는 모든 일을 원칙대로 선을 딱 그어버리는 성격이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여기 시장 어머님들은 “아이고, 그런 거 하나 좀 봐주면 어떠냐. 유도리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데 “어머니, 저는 원칙대로 하고 어머니도 지켜야 할 게 있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는 성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언쟁이 있었던 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잊고 싶어요. 이제.

상인들과 갈등은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감정이 있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들은 이제 제 성격도 알고, 또 2년 지나고 그때 고생한 걸 아니까 “자네만 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저는 해야 될 도리를 한 거니까.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을 꺼낼 일도 없고, 또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누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기억하기 싫고 힘들시겠지만 수해 났을 때는 상황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날이 8월 8일이었고 휴가철 주말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때 군수님이 상인들과 ‘군수와의 대화’를 한다고 아침 8시부터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좀 일찍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려고 하니까 군청 주무관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정 씨, 시장 쪽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군청 상황실 CC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나갈 상황이 안되는데 선정 씨가 나가볼 수 있겠어요? 7시 30분쯤 시장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고 자꾸 군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김에 군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하고 일찍 씻은 김에 그냥 나왔어요.

오일장에 도착해서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상인회 사무실 도착하니까 7시 48분이었거든요.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상인회 회장님이 방송 몇 마디 하고 계시다가 끊고 저한테 돌아서면서 “선정아, 너는 명구리(상인회 반려견)부터 챙기고 나는 용칠이(상인회 반려견)부터 차에 태울란다. 얼른 태워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온다 말이다. 물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디가 물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안 봤냐?” 그러시길래 둘러보니까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명구리를 차에 태워놓고 사무실에 물건 좀 올려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4분이 지났더라고요. 52분에 사무실 입구로 나가니까 물이 발목만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 보여. 사무실 앞 상가 어머니가 다른 때 같으면 맨날 고추 다듬을 때도 있고 장 봐다가 뭐라도 다듬거든요. 항상 그 시간이면.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네. 그래서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른 나오세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 나 밥 먹고 있네. 밥만 쪼까 뜨고 나가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먹을 때가 아니랑께요” 소리쳤는데 어머니가 안 나와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 가지고 어머니한테 또 갔죠. “어머니. 물 들어와. 지금 바로 앞에 요만큼 들어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라고 소리쳤죠. 가게 안에 보니 친척 가족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당진 사시는 데 오셔갖고 아기들도 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아기들 짐 있



는 거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챙기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서 “아이고 이  
럴 때가 아니다. 수저 놓소. 수저 놓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애기들부터 좀 피신을  
시키자고 해서 애들은 제 차에다가 명구리랑 같이 태워놓았죠. 그리고는 돌아서 보니  
그 사이에 벌써 시장이 다 잠겨버렸어요. 가게마다 쌀이고 뭐고 건질 거 하나도 없이  
다 잠겨버렸어요. 제가 아이들은 가게 아드님 댁에 내려주고 명구리는 집에 데려다 놓  
고 오일장으로 돌아왔더니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시장 관계자라고  
말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또 물이 더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  
동에서 만조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다 밖으로 대피했는가 궁금해서 주무관님한테 전화해서 “주무관  
님. 상황실에서 cctv 보시고 우리 상인분들 없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했는데 두 명인  
가 있대. 그래 갖고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정자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 게 보인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선정 씨. 선정 씨도 물에 잠  
기면 큰일 나는데. 수영하실 줄 아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데.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고 들어간다니까는 그 때 할머니가 다행히 밖으로 나왔  
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은 물이 이만큼 찼을 때도 물에 들어가시길래 제가 “회장님, 전기 감전돼요. 괜  
히 전기 통하면 회장님 죽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들어가시더라고요. 여기  
대진 상회라고 있는데 요만한 백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 집 아들





이 불쌍하다고 키웠어요. 회장님이 앞을 못 보는 백구를 안고 나와서 이쪽으로 빼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회장님이 다시 빼서 주차장 쪽으로 올려줬는데 또 시장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눈이 멀어가지고. 회장님이 결국 “아이고,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백구는 살아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 물은 다음 날 빠졌어요.

제가 침수된 날 오후 6시까지 오일장에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굼었으니까 밥도 먹고 다음날 또 나와 보려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6시 좀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9층인데 망원경으로 보면 시장이 보여요. 새벽 2시에 자다 일어나 나가서 망원경으로 봤는데 물이 조금 빠졌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는 5시 반 정도에 한 번 망원경으로 다시 봤는데 물이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 좀 넘어서 시장에 왔더니 우리 총무님이 상인회 사무실을 앞에서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총무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물이 빠졌구먼. 근데 다 못 쓰게 돼버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더니 냉장고며 책상이며 다 엉켜 붙어가지고 쌓여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치우기 시작했는데 여자다 보니까는 물먹은 소파 같은 건 못 들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밥 한 술 뜨고 7시 반에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치우기 시작했죠. 아빠랑 둘이서 짐부터 빼고 가게 앞에다가 나뒀는데 시장 사람들도 가게 앞 길 중간에 그냥 쌓기 시작하더라고요.

### “이제부터 본부로 쓴다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119차가 왔고 마침 119대원이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 토박이다 보니까 그 분이 “어이, 조카. 뭐 필요한가?” 라고 하시길래 “물

이 필요해요. 삼춘” 그랬더니 물로 청소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119 대원들이 와서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하고 물을 뿌리고 그래. 그래서 나는 또 옆에서 또 열심히 치웠죠. 다 치우고 나니까 “여기 본부로 쓴다네” 그러더라고요. 뭘 본부냐고 그랬더니 “봉사자들도 밀려오고 이제 구호 물품도 들어와야 되고 공께. 본부로 쓴다네”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짝 빠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을 준 게 아니고 본부로 쓰려고 미친 듯이 물을 뿌려주셨구나(웃음).

오후 3시쯤 되니까 단체와 봉사자들이 조금씩 구호 물품을 갖고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 어디냐. 순천 국회의원님이 순천 물건 팔아주신다고 복숭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상인회에 준다고 우리 상인회원 명단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 무슨 사랑회 어디서 준 거니까 그거 명단이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명단 드렸어요.

그리고는 오일장 한 바퀴 돌면서 복숭아 들어온 거 있으니까 상인 분들 갖고 가시라고 했는데 다들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가져가지러 않으니 복숭아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또 복숭아가 물이 흐르잖아요. 9일날 주고 가셨는데 10일날 되니까 막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몇 바퀴 돌면서 상인들에게 복숭아 가져 가시라고 말을 해도 상인들이 수해 복구 때문에 바빠서 3일간을 안 갖고 가니까 제가 그것도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느라고 진짜 하루가 다 갔어요.

봉사자들이 이제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8월 15일까지는 엄청 밀려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된 봉사자들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 인원 분류하고 정해서 상가마다 배치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일을 했죠.



또 물이 귀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갖다 주기는 했고 제 지인들이 5백 통 보내 주고 했거든요. 물이 귀하니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예요. 여기가 본부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깐 누구나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자원공사 물 왔을 때 한 집에 한 3~4명이 오서가지고 15박스씩 트럭에 실어가 버리고 또 할머니들도 수레 끌고 오셔서 네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상인회 물을 주민들이 가져 가시는데 안 줄 수도 없지도 않냐. 군청에서도 구호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냐?” 하니 물을 좀 보내주겠대. 그래서 물이 왔는데 10분도 안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안 돼요. 다른 분들도 써야 되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 한 사람 당 한 박스로 나온 건데 이거 두, 세 개씩 갖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데 지금 나가 두 개, 세 개 갖고도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저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자식이랑 같이 오신 분은 더 욕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쁜 사람이 된 거지.

동네 사람들에게. “저 상인회 아가씨. 세상에, 물 하나 받으러 갔더니 두 개 갖고 간다고 난리를 치고 못 가져가게 하지를 않냐” 막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군청에다 민원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저 취조하듯이 나왔어. “가서 누구 주라 했는데 안 줬냐?” 하더니 군수님이 또 다음 날 오서가지고 “여기 아가씨가 왜 물건을 왜 안 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수님. 상인회로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목록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울산에서 오시고 순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갖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 시청에서 갖고 온 거는 햇반이랑 뭐랑 해 갖고 현장에 많이 가보신 분들처럼 패키지 키트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외봤자 20개. 누구 코에 붙여요? 여기 상인이 몇백 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오면 주민들 오시는 순서대로 필요하시냐고 물어봐서 그냥 드리고 또 상인회로 온 뽕들도 있는데 상인들 드리고, 저는 공평하게 돌린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또 회장님이 마을 이장이라 마을 일 보시느라 제가 오일장은 맡아 하다 보니까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였었어요. 육 언어먹으면서 하지, 또 봉사자 보내야 되지, 수해 입은 집을 모르거나 점포를 모르면 또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서울이나 대전에서 봉사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상인회에서 일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받기로 하고 나온 건데 다음 해 1월까지 매일 나왔어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수해를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사정인 정해 가지고 피해 접수를 받아야 됐던 게 10월 31일까지였는데 제가 없으면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상인분들은 저한테 접수하러 오잖아요. 원래는 접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는데 상인들은 답답하니까 “나가 물건이 뭐 있었는지도 기억조차도 안 난다네. 자네가 좀 말 좀 해보소” 저한테 그러셔요. 어머님들이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또 제가 옆에서 적어드리고 어머님들이 “나한테 그 물건이 있었는가?” 그러면 “어머니, 그 물건 있었잖아요. 그거” 그러면 어머님들이 “자네가 나보다 낫네. 물에 빠져들고 난 뒤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을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쌀가게 아버님, 저쪽에 아버님. 이렇게 두세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때 8월 8일 날 수해 나고서 42일 만에 쉬어봤어요. “회장님 하루만 쉬고 나올게요” 하니까 “쉬어라. 그동안 안 쉬었는데.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15일까지는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오고 구호물품도 갖다주고 그랬는데 15일 좀 지나니까 별로 오는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날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오시니까 여기랑 저쪽에 수해 쓰레기 터미를 안 치우고 있으니까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는 나지, 제가 반팔 입고 복구 활동하는데 덥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도 없이 땀 흘리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습진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디 병원에서 봉사자들이 오셔갖고 의료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타가지고 3일 바르고 먹고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쓰레기 안 치우니까는 막 냄새는 나지. 구더기도 좀 생기기 시작하지. 그런 상황들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더 넣고



주무관님들한테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상인회 회장님  
보다 선정 씨가 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웃음)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회복이나 복구가 좀 잘 된 것 같으세요.

구호물품과 봉사자들이 오일장으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양정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는 봉사자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호물품도, 봉사자들이 갔어도 먹을 수 있  
는게 없는 거예요. 적십자사에서 왔을 때에도 봉사자들은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우  
선은 피해 입은 분들이 우선이라고. 근데 봉사자들이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도울 수 있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그  
리고 국밥집이라든지 또 어디 사찰에서 해가지고 짜장면이라든지 봉사를 이렇게 하셨  
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봉사자들 먹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국방부 장관님이 와서 우리 회장님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우  
리 회장님이 ‘덩치 좋은 장병들 50명만 보내주면 수해 현장 다 치울 수 있다’고 하니까  
7공수 부대가 온 거예요. 7공수 부대를 11일부터인가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  
오고 나니까 진짜 해결이 빨리 됐어요. 공수 부대 삼촌들이 젊으니까 일을 금방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여기 끝나고 양정리 가셨거든요. 양정마을 하우스 지원 가는 날, 제 지인이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먹을 거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7공수 부대 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대장님, 우리 대원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햄버거를 맛출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친구가 순천에서라도 사서 보답하고 싶다고, 도와주셨던 분들한테도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순천에서 햄버거랑 음료수랑 주문해 가지고 갖고 왔어요. 150인분 맞춰 와서 장병들 가시는 날 드렸더니 나중에 부대 복귀하신 뒤에 감사했다고 대장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봉사 가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처음이었다고.

물적 피해는 보상이 진행됐지만 심리적인 피해는 어떨까요?

구례군 전체로 봤을 때는 복구된 것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골목골목 사이라든지 파손됐던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3,324억이라는 수해 보상 복구비를 정부에서 줬지만 그걸 어디에 썼는지 군민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수해 복구한다고 서시천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쌓아놓기는 했는데 비만 오면 걱정이 돼요. 8월에도 비가 자주 와요. 2~3일에 한 번씩 오는 꼴이었고 7월에도 그랬고, 그런데 한 번 오면 엄청 와요.

또 8월 8일, 서울에 물난리 났잖아요. 저는 비 많이 온 거 보면서 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 서울에 또 친척들도 살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좀 나쁘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학생이 넘어져가지고 막 굴러가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사람을 먼저 구해야지 그런 영상 촬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저 사람 죽으면 자기가 못 구한 거에 대한 좀 죄책감을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일장 잠겼을 때 제가 다 젖어가면서 야채 가게 할머니를 업고 나왔거든요. 공무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할 생각 안 해요. 제가 구하러 간다니까 “선정 씨 조심하세요” 그 소리밖에 안 했었어요. 그때도 그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세상에 동영상 찍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생각했던 재난과 경험해 본 재난은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물이 넘치고 집이 침수되고 쓸려내려가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만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전라도 쪽에는 생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전라도는 태풍도 비껴간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례에 수해가 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수해를 직접 당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재난을 겪고 나니까 피해 지역에 봉사를 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서울에 수해 났을 때 “회장님. 저 봉사활동 갈라네요” 그랬더니 “오일 시장은 누가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시장 보시고 나는 봉사 갈라네요. 회장님이 전에 우리 물난리 났을 때 안 그랬어요? 어디 물난리 나면 먼저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다 지나 부렸는디, 인자. 이제 여기는 다 지나부렸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해 나고 2년 지나고 피해 보상이 진행되고 하니까 우리 상인조차 이제 잊어버려요. 저도 역시도 잊고 싶거든요. 그때 상황들을. 왜냐하면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비만 오면 진짜 요즘에는 잠이 안 와요. 빗방울 소리만 들리면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8월에랑 7월에 잠을 못 잔 날이 많아요. 회장님도 비 오면 먼저 빗소리에 깨서 둔치 공원이랑 한 바퀴 돌고 오신대요.

기후 위기로 요새 재난이 이전보다 큰 규모로 오고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 그것도 여기 귀농 귀촌 하신 분들 중에 옥수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 일장에서 애들이랑 종이에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를 써가지고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거에 좀 부정적일 때가 좀 있어요. “저것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탄짓 거리나 하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그러고 있네요” 그랬어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옥수수 선생님이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기후 위기라는 거를 조금씩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했죠. 물난리가 나니까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TV에도 우리 수해 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죠. 처음으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 같더라' 같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있는지?

우선은 주변 분들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변에 알려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남들도 좀 생각할 줄 아는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봉사자들도 인식이 바뀌야 될 것 같아요. 봉사하러 왔으면 장갑이나 물품을 좀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피해자라 아무것도 없는데 봉사 왔다고 하시면서 장갑이랑 뭐랑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군청에서 조금 얻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렸지만 다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봉사자들이 갈아입을 옷도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에이팻코리아에서 티셔츠 주신 것 봉사자들 나눠 드리고, 상인 분들도 드리고, 또 군부대도 빨래를 못하는 거예요. 옷에서 냄새나고 하니까 그 분들도 몸에 물집 같은 것이 올라와서 티셔츠 나눠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복숭아 이야기 들으면서 막무가내로 놓고 가는 물건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가전제품 수리 봉사하러 온 분들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만 앞서서 물건을 보내는 것보다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때 구호단체인 에이팻코리아도 저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봉사자들이 밀려와서 밥도 못 먹고 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구례 자연드림파크 오성수 대표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하루

빵 생산 물량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힘써보겠다고 하시더니 빵 150개를 급하게 만들고 음료수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일장 중심으로 해서 구례 수해 이후에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요?

잃은 것은 예전의 추억, 물건들이죠. 우리 회장님은 집안 족보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봉사자들이 집 정리를 도와준다고 젖은 물건들을 도로에 꺼내 놓는데 집 주인이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도 정리하느라 바쁜 거예요. 우리 회장님조차도 봉사자들이 와서 치워준다고 물건을 모두 밖으로 꺼냈는데, 정치인들이 온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들을 수거하는 트럭이 다 싣고 가버린 거예요. 속옷 하나도 못 챙기셨어요. 금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다 싣고 가버려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보름 넘게 슬리퍼 하나 신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자기 가족사진을 다 잃었잖아요. 마음에서 잃은 게 많죠.

그리고 얻은 것은... (잠시 고민) 저는 상인들을 얻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상인들이 “아이고, 사무장. 피해 보상 적어야 되는데 자네가 글씨 써 줘 갖고 참 고맙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눈물이 나거든요. 저도 “어머니, 그때 그거는 추억이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게요. 아이고, 이제 물난리 나면 나도 도망갈 거라요. 다시는 나 여기 안 있을 거라요. 나는 월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상인들을 얻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상인분들에 대해서 몰랐었고 저는 원칙대로 말하면 그 말이 서운해서 어머님들은 막 쏘아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엄마, 오늘 또 물건 밖에 내놔네. 지킬건 지킴시다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네. 우리 사무장. 알았네, 우리 똑순이 그걸 또 봤네” 그래요. 수해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보겠어요. 여기 일하니까 어머님들이랑 다 가족 같고, 집이 어딘지도 알고 어머니 몇 년생인지도 나는 다 알아요.



구례 수해로 오일장이 잠겨 구호활동을 하러 갔을 때 오일장 김선정 사무장을 만났다. 오일장 입구에 있는 사무실을 급히 오가며 물자를 접수하고 배부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오일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보였다. 필요한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성격만큼이나 성큼성큼 연락을 해왔다. 마스크, 간식, 생수 등등... 화장기 없는 건강한 얼굴에 시원한 성격만큼이나 일 처리도 척척이라 당시 상인회 사무실은 오일장 복구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복구도 빨랐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씩씩하게 오일장에서 상품권을 세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구수한 사투리 입담으로 펼치는 재난의 기억에 오히려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행동이 먼저라는 원칙이 우선이라 고민과 걱정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 나름 마음고생이 컸던 모양이다. 그래도 금방 회복되는 삶의 기술력이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듯 보였다.

능력에 맞지 않게 구호활동을 다니다 보면 스스로 그 무게에 눌러 벗어나기 어려운 시간이 있다. 김선정 사무장을 보며 오히려 힘이 났다.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재난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한 것 참 다행이다 싶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어려움을 이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정리 / 정미정



## 그때, 그 언니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정리 / 정미정

포항에서 지진을 겪었던 당시에 공포와 불안 때문에 포항을 벗어나고 싶더라고. 지진이 났던 날, 불안에 떨며 대학 운동장에 대피해서 있었는데 그곳을 벗어나면 내가 지진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서 그날 밤에 바로 구례에 왔어요. 구례에 집을 짓는 중이어서 이불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숨고 싶었어요. 심리적으로 재난 지역을 벗어나면 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례에서 몇 년 살다가 또 수해를 입은 거지.

구례 수해 이후 한 번도 심리 케어나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인생에서의 재난 경험을 각자 따로 개인이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선경님은 포항아이쿱 이사장을 지내는 등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1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구례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겪은 뒤 구례로 이주했으나 구례에서 다시 수해 피해를 입었다. 밤 길에 차가 물에 잠겨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수해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

구례 수해 나기 전날 밤에 길에서 차가 침수되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떠셨나요?

운전하던 차가 물에 잠겨본 경험은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수해가 나기 전날 밤에 마을로 들어오는데, 길이 어둡다 보니까 꺼진 도로에 물이 차 있는 걸 모르고 차가 그냥 들어간 거지. 우리 차가 승합차인데 차체가 높은데도 물에 잠겨가지고 아예 시동도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로는 킁킁하고 차 안에서 발목까지 물이 차고, 인적도 없고 차 문도 열리지 않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었어요. 차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는데 물이 내 가슴까지 차서 긴장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머리 위로 들고 119에 전화를 하니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어요. 재난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지요. ‘아! 사람은 이렇게도 그냥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떤 특별히 예견된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일이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그 경험을 해본 것이 삶에 어떤 성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추구하잖아요. 추구하고 성취하고, 또 추구하고 성취하고. 그런데 다 죽음 앞에서는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보게 된 거죠. 내가 너무 먼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되더군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과 함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때 죽었다 생각하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기적 같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해로 물에 침수된 차는 탄 지 2년 됐는데 폐차되고 보험 자차 보상금으로 저렴한 중고차를

사고 대신에 좋은 오디오를 샀어요.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생각하다 음악이면 좋겠다 싶어 오디오를 장만했어요. 죽을 뻔하고 나서 우리 인생관이 바뀐 거잖아요. 나의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음악을 들으며 일상을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이나 재난을 겪으셨는데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도하거나 경험하셨나요?

구례 수해 이후 한 번도 심리 케어나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인생에서의 재난 경험을 각자 따로 개인이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마을에 한 언니는 수해 때 집이 물에 반쯤 잠겼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집 밖으로 피해 나오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집을 어떻게 단도리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지인이랑 같이 가서 단도리를 했지요. 집이 물에 잠겨가는 충격에 당사자는 정신이 없지만 주변에서 대책을 세우고 “집에 방문을 다 잠궜라. 그리고 웬만한 건 위로 올려놓자” 해서 급하게 움직이는데 물이 이제 마당으로 점점 스며드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이 언니가 뭘 들고 나왔냐면 우쿨렐레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그 이후로 집에는 못 가고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면서도 레슨 하는 날 우쿨렐레를 챙겨서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농담한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거 치고 앉아 있냐”라고 말한 거지. “베짱이 같아...”라고도 하고. 근데 이 언니가 나중에 그 말이 아주 상처였대요. 집



은 물에 잠기고 정신이 없으니까 뭘 들고 나와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 언뜻 우쿨렐레가 눈에 들어와서 들고 나왔고, 유일하게 남은 살림이 우쿨렐레인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쓰던 일상적인 모든 살림이 물에 잠겼으니 상심이 컸겠지요. 언니는 유일하게 건진 우쿨렐레를 끌어안고 연주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재난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음악에 몰입하는 거잖아. 우쿨렐레를 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언니가 물에 잠긴 집을 계속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언니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OO언니 지금 기분은 어때? 괜찮아?”라고. 그 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나도 전날 차가 잠기는 피해를 입었잖아요. 밤에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밤 10시 넘어 집에 왔거든요. 다음 날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초입의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들을 동네 사람들이 구하는 구호활동을 펼치는데 남편은 전날 밤 차가 물에 잠긴 충격으로 아침에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어요. 우리가 전날 겪은 끔찍한 경험을 동네 사람들은 몰랐지만, 소를 구하는데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터라 저는 은근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소를 구하는 걸 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동네분들 드시라고 부추전을 부쳤어. 다들 비 맞고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고 있어서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전을 구워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전날 밤에 차가 물에 잠겨서 죽을 뻔했어요...” 이 말을 못하겠더군요. 동네 인근이 모두 수해로 아수라장이어서 나의 경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은 참 중요하겠구나. “어젯밤 비에 다들 무탈하신가요? 별일은 없으세요? 혹시 피해 입은 분 계신가요?” 동네에서 일상을 함께 하는 이웃이지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상처는 금방 치유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속상하고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우리 마을에 올 때 혹시 작은 다리 건넜어요? 문척교인데 이따가 나갈 때 내가 보여줄게요. 문척교가 오래된 다리인데 강물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운치 있는 다리예요. 지리산과 섬진강 풍경이 함께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강물 흐름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 다리를 없앤대요. 수해의 책임을 문척 다리에 두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다리의 문제가 아닌 댐 방수가 구례 수해의 피해를 키운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다리를 살리는 운동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수해 이후 삶에서 또 다른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우리 마을 앞에 축사가 있어요. 수해가 나기 이전에는 불편한 시설로 생각했어요. 냄새도 나고, 단 한 번도 저 축사에 있는 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태적으로 또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불편을 끼치니까. 소들의 울음소리 비만 오면 냄새가 마을로 올라오니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수해가 난 날 주인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소를 두고 대피를 하신 거지. 축사 입구까지 물이 차버렸으니까 위험하잖아. 축사가 물에 잠기니까 주변으로 소들이 뚱뚱해엄쳐 떠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니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애들은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깨우고 저 소 다 죽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축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감전 위험 때문에 물속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기 차단기 조치하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 물놀이 튜브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소를 살리려고 밧줄로 묶어서 줄다리기하듯이 영차 영차 끌어냈어요.

그 후로는 축사가 더 이상 혐오 시설로 보이지 않는 거야. 여기에도 ‘나와 같은 생명이

살고 있었구나'하는 성찰이 오더군요. 소들이 이 재난의 위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걸 느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소들을 구해줬고 그래서 나 중에는 축사 아저씨랑도 친해지게 됐어요. 소를 구하고 난 이후 동네분들에게 고마워 하고 더 나아가서 아는 관계가 된 거지. 구례 수해가 나고 집이 물에 잠긴 분들이 많아서 여기 주택단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했어요. 벽돌집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경량 목구조 집들은 물이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구례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동네 커뮤니티 모임방에 사셨어요. 한두 달 가까이 사셨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분이 이 우리 동네에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마을로 이주하실 계획인 거지요. 수해 때 동네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두 달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정이 든 거죠.



이선경님은 이번 인터뷰를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만나게 되었다. 지역 상황을 알아보고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기 위해 만났는데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 인터뷰 길이가 짧은 이유이다.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해 당시 침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의 목욕과 식사 구호 활동을 적극 도왔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나의 고통보다 타인의 아픔에 다 공감하고 남몰래 나의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다독이며 피해자들을 도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행정 기관처럼 백서를 내지도 않았으니 그냥 저마다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번 작업으로나마 꺼내어 기록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글을 마감하는 도중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마음이 너무도 무거운 나머지 글을 마무리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놀러 가서 당한 일'이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너무도 아프다. 소수의 생각들이 SNS망을 통해 눈덩이로 키워진다는 것을 또 잊고 산다. 나보다 남의 슬픔에 더 공감하고 도우려는 이들의 마음이 더 많고 크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인터뷰 정리와 글 / 정미정



## 섬진강이 그어 놓은 마음 속의 선 하나

정리 / 윤정임

그 날로부터 구례 사람들 마음속에 선 하나가 생겼어요. 자기 집이나 시장에만 나가봐도 물 들어온 수위까지 거기다 선을 다 그어놔어요.

8월 8일 아침 7시 30분, 8시 10분 이렇게... 집이 없어진 분들은 마음속에 그 선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섬진강이, 우리 구례 사람들 어머니 강이고 늘 가면 충만하고 뭔가 하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강이었었는데 그 강이 이렇게 화를 내서 구례 일대를 섬처럼 덮어버리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이죠.



구례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그 현수막이 초대할 곳, [2020년 섬진강 수해 후 2년, 그날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며 ‘구례 사람들’ 그림 & 사진전]이 열린 구례문화예술관에서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님과 정영이님을 만났다. 수해의 장면들이 옛이야기인듯 아득하게 걸려있는 공간에 우두커니 앉은 두 분이 오늘의 구례를 보여주는 듯했다.

선생님들의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정영이 (이하 정) 저는 1996년에 구례로 이사를 왔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기가 시택이죠. 구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광주에서 살았고요. 남편을 만난 건 87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구례 사람이었던 셈이네요. 결혼하고 아이가 어릴 때 시택 고향으로 남편을 따라왔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여성농민회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농민회를 조직하는 것부터 함께 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김창승(이하 김) 저는 2014년 1월 14일에 여기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쪽 구례 태생이고 여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광주에서 학생 때 만났습니다. 구례가 집사람의 연고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나 형제가 사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이니까 여름 휴가 때나 또 수시로 시간이 나면 구례를 왔다가고 머물러서 좀 마음의 여유도 찾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본인의 모교로 가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합당해서 약속하고, 어떻게 계기가 돼서 이쪽으로 내려와 구례에다 적응 두게 된 거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 한 9년 됐는데 참으로 행복하고 마음의 여유를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구례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년 전에 그런 아픔을 보면서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으로 뭔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여기에 이렇게 투신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면 또 한 번 생각해 봤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례에서는 글 쓰고 사진 찍고 구례 사람들과 지리산 소식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



요. 구례를 알리는 서포터즈 활동과 구례는 귀농·귀촌인들이 희망하는 곳이니까 귀농 귀촌 협회 회장 같은 그런 소소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수해 당시 선생님 댁이나 일터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셨나요?

김 워낙에 많은 피해자와 광범위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들의 작은 피해를 표명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환경 분쟁 조정에 우리 피해를 사실 청구할 때조차도 몇 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또 확인하고 추가 접수받고 이랬더랬습시다. 분위기가 나보다 큰 피해입은 사람한테 집중하자고 내 피해를 숨기고 같이 동참해 주고 마음을 합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논농사를 좀 합니다. 근데 8월이니까 막 벼가 올라오는 그런 시점인데 금내리 마을에서 원류했던 그 부분으로 일대가 다 잠겼죠. 터지면서 그쪽에 제 논도 완전히 잠겨서 며칠 만에 물이 빠졌는데 가서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동네 향아리가 막 떠내려와서 열어보니까 멸치장도 그대로 다 담겨 있고 온갖 세간살이 다 떠내려오고, 특히 신발 같은 거 옷가지 같은 거... 그런데 나 정도를 피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숨기고 있었고요. 나중에 주민 대표하면서 환경분쟁 조정 신청할 때 주민 대표 3인을 선정했어야 됩니다. 그때 주민 대표는 피해자여야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고를 했고요. 손해 사정 평가도 받고 있지 않다가 그때 마지막에서야 이제 했지요.

정 당신의 피해는 너무 적고 소소한 거라고 하셨어요.

김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고요. 작은 피해는 피해라고 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환경 문제 실태 파악을 했는데 막상 배상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도 청구하지 못했다고 하신 분이 8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지금 6월 3일에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통은 어떻더라도 내 피해가 제일 큰 피해라고 받아들이시는데 구례에서 만난 분들은 내 피해는

피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절** 그렇죠. 저는 피해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남원에 인접해 있는 용방면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냥 산 밑에서 살거든요. 매실 농사를 짓는데 매실 나무죽고 산사태가 최근에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복구를 했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너무나 가깝게 사는 친구들 또 친척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농민회 회원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 일은 돌아볼 수도 없이 그냥 바로 그날부터 당장 가서 가재도구 끌어내주며 그렇게 처음 복구 현장에 들어갔어요.

나의 피해가 적다고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를 먼저 돌보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한편으로 '누구도 불행할 수 없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말이 생각났다. 몇 년 전 416 재단에서 발간한 [피해자 매뉴얼]에서는 재난 목격자 역시 피해자로 규정한다. 재난을 목격한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한다면 구례 전체에서 이 수해의 현장을 같이 목격하고 그 안에서 살아온 모두를 피해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김** 수해의 실제 피해자는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대단한 피해죠. 왜냐하면 가구 수로 2천 가구이기 때문에 2인 가족만 하더라도 3인 가족 애들이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구례 역사에 유례없는 상당한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구례에 던져준 숙제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구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선 하나가 생겼어요. 선 하나가 대부분이 다 자기 집이나 우리 시장에만 나가봐도 물 들어온 수위까지 거기다 선을 다 그어놔요. 8월 8일 아침 7시 30분, 8시 10분 이렇게 선 하나씩을 그어놓고 살고요. 집이 이제 없어지거나 망실이 되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 선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고 일기 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밤새 잠을 못 자요.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습시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피해자 소통방이 있습니다. 몇백 명이 거기서 소통하고 긴급 상황을 알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괜찮을까요? 지금 섬진강 수위 댐 수

위가 몇 미터일까요? 방류량은 얼마일까요? 우리 이렇게 저녁에 집에 그냥 있어도 될까요?’ 이런 걱정과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다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오래 가슴 속에 갖고 있고 앞으로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는 2016년 한 번의 큰 지진 이후에 1년 동안 여진이 600여 회나 있었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윗집에서 창문을 여는 소리에도 놀라게 돼요. 재난이라는 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기도 전에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저희도 공감해요.

그럼 수해 당일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길 어쨌면 그냥 폭탄 맞은 거죠. 우리가 분단된 국가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을 ‘38선이 무너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가 물관리 잘못에 의한 물 폭탄이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닥친다 재난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대책본부를 빨리 꾸리게 된 것도 소외됨이 없는 구례를 먼저 실현해야겠다. 아픔을 같이 겪었으면 같이 일어서고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관행은 드러난 큰 단위부터 구제하라고 시스템이 다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조차도 해결 못 하고 잠자리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부터 소외됨 없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회복을 주장했는데요. 그날 아침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우리 섬진강이 늘 우리 구례 사람들 어머니 강이고 늘 가면 충만하고 뭔가 하나를 꼭 안아주고 주는 그런 강이었는데 그 강이 참 이렇게 화를 내서 구례 일대를 섬처럼 덮어버리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이죠.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습시다. 1965년도 댐이 생긴 이래 댐이 허용될 수 있는 수치의 최대치를 방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선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례가 취약 구간이기도 한데 섬진강 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의 곡성 지역에서 주암댐이 합류되기 때문에 또 가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전라북도 임실부터 시작해서 곡성 나오는 순천까지는 단일댐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구례는 2개 댐의 직접



영향을 바로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암댐도 최대치, 섬진강도 최대치를 이렇게 풀어  
서 구례를 물바다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행위를 했다면 사람들이 몸을 피한다거나 동물을 피신시킨다든가 여  
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불과 7분 전에 통보해서 그렇게 대량 방류하면...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지만 막 외치는 소리에 몸  
만 빠져나오다가 차가 시동이 꺼지고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상  
상할 수가 없어요. 그날의 아픔은 국가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밖  
에 안 되는 나라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당황스  
러운 아침 8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다행스럽게 없었지만 이게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면 대량의 인명 피해도 발생합니다. 그 증거가 양정마을의 소 피해지요. 구  
례 소 3천 마리 중에 1,500마리 이상이 유실된 것이 증거지 않습니까?

절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소들이 죽은 것이지요.

길 그것이 수면이 올라와서 점차적으로 고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일시에 양정은 양정  
대로 오일 시장은 오일 시장대로 마산천은 마산천대로 토지천은 토지천대로 터질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다 터진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지로 피신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 거고 다행히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이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뭘 건지나 봤  
더니 앨범부터 건집디다. 다 떠내려 갔어도 자기의 추억 하나만큼은 건져내고 싶은 거



예요. 제일 먼저 가족의 추억과 애환이 곁든 앨범을 찾아내서 양지바른 곳에서 꼬득 꼬득 말리는 것부터가 복구의 시작인 것을 보면 참 눈물 나죠. 특히 우리 구례에는 하우스 오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이 호박 하우스 농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가 완전히 옛가락처럼 휘어져졌잖아요. 그 와중에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은 또 미스터리한 부분이야 또….

김 오일 시장뿐만 아니라 냉천 상가부터 해서 고무보트가 등장해서 민간인이 고무보트로 다 실어 나르고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리고 했죠.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 아침에 내복 입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분 깨워서 등에 업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서로 간의 깊은 눈으로 돌봐주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크겠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저 집은 노인이 산다. 저 집은 어디에 사람이 이려고 있을 것이다. 저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이 그나마라도 목숨을 건졌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서울 수해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동네에서도 그 안에서 사람을 건져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걸 상당히 강조해야

될 거 같아요. 바로 옆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 이걸 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수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힘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절 비가 며칠째 밤새도록 내렸고, 그 전날 저녁에는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어요. 들어갈 때가 아니야 우리 마당이 넘치고 그럴 때잖아요. 그게 넘치지 못하게 저희는 119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119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저희 집이 고속도로 밑이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물길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뜬눈으로 밤새고 그렇게 조치해두고 뉴스를 계속 보는데 구레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읍내를 나갔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구레 민주단체 연합이라고 아주 느슨한 연대로 한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카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 시민사회 소통방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한 200여 명 모여 있는 시민사회 소통방이 있는데 이 방에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넘치고 있어요. 기차가 오다가 구레까지 못 옵니다.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남원에서 오는 도로 어디가 유실돼서 거기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식을 서로 주고받게 된 거예요.

당장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어딘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소통을 했고, 이제 다 잠기는 상황부터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창승 대표님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연락해 오신 거예요. 제가 민주단체연합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뜻있는 사람들이 민간 대책위를 꾸려야 되겠다. 이 정도 재난은 구레군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다 수습하거나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 단위에서 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고 하면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 민간이 챙겨야 할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고 대책본부를 꾸린 거죠. 빠르게 꾸리자 시민사회 소통방을 통해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연락해 오시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맡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게. 우리 집 방이 비어 있어. 물탱크에 물이 안 나오면 농사짓는 분들은 농약을 하기 위해서 물통을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복구했지요. 이걸 내가 할게. 우리 집에 와서 샤워하세요. 또 어디서 자원



봉사 지원하러 오신 분이 잠잘 데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주무신다 하면 그분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게 하자 이런 글들이 소통이 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냐만은 진짜 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수해 당일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 같은 게 있네요.

점 당일 맞네요. 그날 제가 들어갔겠네요. 일단 물이 빠지고 나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 제가 지원을 갔어요. 그냥 아는 집이라서 갔는데 오일시장 이쪽에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 집은 너무나 처참했던 모습으로 잠겼거든요. 집하고 연결된 카센터와 옆에 있는 편의점 가게까지 다 잠겼는데 저는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일단... 그 아내의 눈이 정말 초점이 없이 뭘 해야될지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날 순천에서 적십자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장롱부터 시작해서 안쪽 서랍까지 이렇게 다 끄집어냈는데 그 집은 참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정말 옷가지 하나하나가 잘 정돈이 돼 있고 철 지난 이불은 압축해서 잘 보관했고 집 안에 짐이 다 잘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옷이며 이불이며 온갖 살림 가재도구들을 무조건 갖고 나오는데... 그냥 봐서 뭐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버릴려고 무조건 다 길가에 갖다 내놓거든요. 그 엄마가 이불을 질질 끌고 와요. 또 누군가가 내다 놓으면 다시 들고 오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불 빨래해놔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언니, 나 이거 있잖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덮어 줬던 거라서...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이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더니 아기 땃줄, 벌써 고등학교생인데 산모수첩 이런 것까지 다 차곡차곡 해놨는데 또 그대로 꺼내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게 또 폭력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쨌든 다 끄집어서 갖다 놓으면 포크레인이나 딱 떠가지고 그대로 트럭이 싣거든요. 그럼 그거를 찾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 아이가 예민한 여고생인데 그 아이가 그 기숙사에서 가져온 짐이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그 캐리어를 열었는데. 아, 거기서 이제 브래지어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엄마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나 알몸으로 서 있는 거 같아.’고 그랬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가 보면 이 집은 살림을 어떻게 했겠구나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서 있는 거 같다는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재난 자원 봉사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구호가 폭력일 수도 있다는 말이 뒤통수를 쳤다. 타인의 시선에서는 한 덩어리의 쓰레기 더미를 날 날이 펼쳐보면 그들의 시간과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다. 소통이 부재한 일방의 도움은 누구를 위한 행위일까 고민하게 된다. 구레 수해의 구호 과정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지역의 피난소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 드러나고 있다. '구호 활동에서 존엄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프로젝트를 보다 폭 넓게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된다.

얼마 전에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김** 2020년 수해 당시에 기억할 수도 없이 많은 손길들이 와서 마음과 몸으로 여기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재난과 달리 수해는 물 먹은 가구나 모든 것을 치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하고 땀별이 내리쬐는 과정에서 온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맘을 안다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많은 단체들이 와서 정말 자기가 가진 역량 이상으로 도와주셨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힘을 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계기가 되면 우리도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구레가 돼야겠다 해서 많지는 않지만 뜻을 모아서 울진을 다녀왔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사람이 참으로 무기력하다는 걸 동시에 같이 느꼈고요. '서로 힘내자. 힘냅시다. 좋은 날 올 겁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울진까지 엄청 멀죠.

**김** 운전하고 갔는데요. 6시간 좀 더 걸리더군요. 가고 오는 데는 12시간 걸렸죠. 이번 중부지방에 내렸던 비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민간단체를 조직화해서 한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해 2주년 행사를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몇 가지 미

진한 부분들 정리도 해야 돼서 선뜻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어디든 필요하면 가고 싶습니다.

구례에는 수해 당시에 서로 힘과 마음을 내주는 것들이 새로운 발견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속상했던 상황이나 말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정 저희들은 미루어 짐작만 하죠. 같이 아프고 분노하기도 하고 같이 대응할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했어요.

김 댐 관리에서부터 홍수기 때 최우선적으로 홍수 방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무시한 거예요. 댐이 찰랑찰랑 넘어가기 바로 직전 3m 전까지 채운 것이거든요. 당시에 54일 동안 비가 왔었고 우리 섬진강에도 7월 10일부터 네 차례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되고 예비 방류를 했어야 되죠. 아무런 조치않고 있다가 댐이 21시간이나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간절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활용하죠. 이런 것이 어떤 수해의 지역이나 어떤 재난 지역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근데 다 나중에 발뺌하잖아요.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고 거기에 처벌받을 자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오신 분들이 정치적인 편향으로 피해 주민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빈 껍데기라는 거지. 우리 2천 가구가 다 물에 먹었으면 껍질은 집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다 뜯어내야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침수 일부 났다고 200만 원, 그다음에 반파 800만 원 완전히 없어져 버려 망실된 그런 가구에 1600만 원 준다는 것이고 국가 재난지수 등급에 의해서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산정을 하잖아요. 최대 1등급 최고 피해를 많이 입은 자한테 5천만 원 주는 것이 국가재난기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몇십억씩 피해 입으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참 년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픈 사람한테 거짓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 최근에 문척교 다리 때문에 투쟁을 또 시작해서 그 일로 군청에 갔다가 주민 한 분

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냐 그래서 수해 때문에 좀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놈의 수해, 이제 그만해라.’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군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대책본부 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죠. 배상 투쟁했는데 저희가 피해 신청한 피해액의 48%를 배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투쟁을 잘못해서 배상을 그것밖에 못 받았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억장도 무너지죠. 그리고 안타까웠던 거는 대책본부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된다하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답이 없는 경우죠.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 이제는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뭔가 해야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절망적이죠. 수해 당시에 시민사회 소통 카톡방에 바로 여기 옆에 섬진아트홀 나무 위에 물이 빠지고 났는데 송아지가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119가 전화를 안 받는데 저 소 어떻게 끌어내게 좀 해주세요.’하는데 모든 119 대원들이 더 급한 양정마을로 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역량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힘들었죠.

어느 지역의 대책위이든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반드시 생기고 또 오해와 비난이 따르기도 하다 보니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배상 투쟁에 집중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애를 쓰셨죠. 배상 투쟁은 딱 피해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이 왜곡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되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했어요. 전국의 댐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누구도 못 잡아내는 것들을 잡아내서 배상을 전인해오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대책본부가 조금 느슨해지고 이러면 실무 역할까지 또 하셨던 거예요. 너무 고단한 2년을 보내셨어요. 저는 너무 당신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소진하고 계시는

걸 지켜보면서 저러다 대표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았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재난을 수습하려고 나설 때 대표를 세우는 일은 힘든 일이다. 맡아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처음에 맡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대개 스스로의 능력보다 선한 의지를 앞에 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를 기억하기보다 는 능력치를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리더들이 좌절한다.

여전히 구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나 외부의 도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절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구례의 자연경관이 바뀐다고 봐야될 정도의 내용으로 복구가 돼 가고 있는데, 정말 생태를 살리고 지리산이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 걸맞는 그런 내용으로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토건 사업은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주민들 얘기를 듣는 방식으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대화의 자리가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례에서 하는 유튜브 인터뷰도 한 번 했고, 치유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있어서 잠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만 하려고 거슬러 나가려면 막 눈물부터 나는데 2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분들 중 내가 아는 분들만 떠올려봐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전히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불충분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좀 더 다독여주고 인정을 해주면 될 거 같아요.

빛내서 다시 복구하고 빛내서 집을 지었고 빛내서 하우스를 다시 하고 빛내서 가게를 다시 차리고 이랬던 분들을 그냥 다독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집단 치료도 하시고 관에서는 치유, 회복을 위한 꽃 만들기 이런 거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냥 여성단체 한 4~50명 와서 다육이 심고 한 집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 너무 형식적이죠. 민간 단위에서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무국도 끓여드리고 학생들이 가서 봉어빵도 굽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아주 소소한 일이지요.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김** 앞으로 정말 힘을 낼 것은 지금부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공간에서 너무 말할 수도 없는 이런 공허한 상태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매꿔 줄거나 또 손을 잡아 줄거나 이런 부분을 좀 고심 해야될 거 같고요. 또 이번 배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6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숙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대책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절** 민간 차원에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배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군민운동을 또 했죠. 군민의 힘으로 배상금을 우리가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가 7천 얼마를 모금을 해서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배상액이 3억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여기에는 배상받은 피해 주민들이 많이 함께해 줬죠. 이제 남은 과제는 구례군에 요청을 했죠. 조례 제정으로 이분들을 보상해야 한다. 일정 정도 동의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어찌 보면 투쟁이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이죠. 대책위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지역에 사는 수해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게 있을까요.

**김** 댐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댐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물 배분을 적정하게 해줘야 되고, 또 우수기 때는 댐 대란 방지법을 제정해줘야 됩니다. 계속 물을 자원화하는 형태로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제 앞으로 빈번해질 것입니다. 예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모니터링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섬진강 가에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고 참으로 기가 막힌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알았지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 안 겪으면 좋은데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해서는 재난의 순간 경향이 없으시겠

지만 들이닥칠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포크레인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짜 그 순간이 가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 땅을 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해 이후 2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보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인데요. 수해 당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 우리 대표님이죠. 힘들 때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순간도 신념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아직 수해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닥 없지만 정말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하기가 사실 버거워요. 근데 대표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요.

앞으로 수해와 관련한 활동이 마무리되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삶을 살 거예요. 그 길에 늘 함께하고 싶어요.

**길**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동지를 하나 얻은 것이 큰 위안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총량보다는 훨씬 더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아픔 앞에서 뭐라도 해야 되고 할 때 똑바로 좀 하자 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감히 17개 시군의 주요 5개 댐 주변에서 피해민들의 가장 구심점이 됐던 것이 구례였고, 구례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만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비록 국가에서 배상을 다 못 해준 그런 부분들이 절반이 있지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신념에 의해



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절반도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얼마든지 또 내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끼리 손을 마주 잡고 가면 더 좋은 거리 만들 수 있고 더 연대할 수 있고 더 희망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수해가 지난하고 좀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후회 없이 싸웠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다시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구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끼리’라니... 이 앞뒤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이 주는 힘을 느꼈다. 스스로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 스스로끼리’. 구례는 수해 이전부터 연대의 손을 서로 맞잡고 있었고 수해를 겪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손아귀의 힘이 커졌다.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깔고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힘듦을 이겨내는 시간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연대를 꺾이는 시간으로 만들어 내는 그 힘이 놀라웠다.

정리 / 윤정임

## 우연히 발견된 그러나 늘 존재해 온 문제들

정리 / 정꽃님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자들이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수해 때 문에 드러나긴 했지만 계속 상존해 오던 문제인 거였죠.”



최아리님은 구례에서 역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뜻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구례 근현대사 관련 증언들을 녹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구례 지역사에 대해 수업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소개받은 이름은 ‘구례 영유아 모임의 모모님’이었다.

‘구례 영유아 모임’은 어떤 분들의 모임인가요?

구례가 아이를 키우기 정말 부적합한 동네라서 그러니까 구례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자체가 없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차가 운행할 길들이 없어요. 전적으로 시골 전형처럼 그냥 운전자 중심, 성인 중심, 남성 중심의 도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다가 - 그게 벌써 한 3, 4년 전이죠. -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구례 안에 어떠한 영유아 시설도 없었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모든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소하게 건의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임을 시작했었어요.

모모님은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큰 피해를 목격하고, 또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수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불안 불안해했었고 벌써 피난길에 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 문척에 사는 친구들은 ‘문척에 독이 올린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미 벌써 다른 데 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다들 어찌면 뭔가 긴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지진이 올 땐 쿵쿵쿵쿵 땅이 달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독이 올린다.’라는 건 어떤 소리일까. 문척에 사는 모모님의 지인은 수해가 나기 이틀 전부터 쿵쿵쿵쿵쿵쿵 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휘어진 강줄기 부분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독을 치는 소리였다. 언제 어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8월 8일이 왔는데 아침부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물이 찼다 그래서 일단 다 보러 나왔죠. 어디까지 왔나 했는데 거의 뭐 도심의 절반이 잠긴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때 맨붕이 왔다가 아기 엄마들이 잠긴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 하

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구례 군청에 연락했어요.

구례 군청에 연락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만, 전화를 받거나 물건 분배하거나 이런 일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례 군청도 어떠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고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저희도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아쉬웠는데 그날 저녁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구호 물건들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쌓아놓고 정작 나가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8월 9일부터 외지에서 구호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서도 오일장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의 어떤 구례 수해의 상징이 오일장이 되면서 그쪽에 인력들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산책 도서관이라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오일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일장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나 거기 상인들에게 ‘물이라도 커피라도 우리가 주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걸 우리가 적극 결합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놀이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저희는 이제 번갈아 나가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홍수 7일 쯤까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매일 나가서. 근데 홍수 7일이 보니까 8월 14일이래요. 8월 14일에 오일장은 보도 차량이 매일 왔고 완전히 깨끗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는 우리가 오일장 안에 물을 나눠 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물도 나오고 배식도 되고 이래서 저희가 막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냥 저희가 물을 다 들고 다녔어요. 아기 엄마들이 생수 작은 거를 한 몇십 개씩 가방에 지고 8월 더위에 다녔거든요. 근데 우연히 골목 하나를 들어갔는데 거기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거의 어떤 삶의 의욕 자체가 없는 표정으로 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앉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랐죠. 왜냐면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다고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다 복구됐다고 얘기하고 빠진 읍내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뺨이 이만큼 들어찬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특성상, 체육관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운영했는데요. 대피소로, 체육관에 안 가고 싶어 하세요. 가시기 싫어하시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거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피난소를 안 가신 이유가 뭐라고 짐작되세요?

첫 번째는 이동할 수 없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례북중학교, 군청 같은 데 집(피난소)을 주는데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없으니까 어르신은 갈 수 없고. 제가 그때 많이 만났던 어른 중에 제가 위험하다고 여겼던 분들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자들이랑 있는 거는 꿈에도 못 꾸요. 그냥 그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못 가시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이유로 할머니들은 피난소에도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구호도 받지 못했다. 배정된 피난소가 너무 멀어서, 버스가 없어서, 그리고 모르는 남자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세대라서. 특히 마지막 이유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의 문제였다.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던 때쯤 우연히 들어간 골목길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목격한 후 모모님과 ‘영유아 모임’을 비롯해 산책 도서관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새로운 방식의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보고 나서 그날부터 지도를 뽑아서 모든 골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끼리 그때 회의를 한 내용이 일단은 좀 응급한 어르신들과 아닌 어르신들, 자력으로 구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골목의 수해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고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이 있고 독거노인 위주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체제를 전환해서 어르신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안에 뺨을 빼고 청소를 하고, 철거의 필요가 있으면 철거를 하고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던가, 싱크대 이런 것들을 다 빼야 하는. 그때 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 썩어가고 있어서 벽지도 다 떼어 내야 하고 장판도 다 빼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팀을 나눴어요. ‘사실 확인팀’하고 ‘현장팀’을 꾸렸어요. 할머니들이 다 썩어가는 곰팡이 슨 곳에서 돛자리도 없이 그렇게 계셔서 현장팀을 꾸렸어요. 이거를 빨리 치우고 어떻게든 누워서 자야 하는데 보일러도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한 일주일 되기 전부터 외부로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그 물건이 실제로 풀린 거는 일주일도 넘어서부터 풀렸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는 집들이나 어르신들이 당장 입을 옷과 당장 영유할 수단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알려져 외부로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었고 본의 아니게 돈을 좀 부쳐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산책 도서관 통장으로 해서 기금도 받고 물건들과 물 같은 것들을 시시 별로 필요한 것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책 도서관이 어떤 (구호 활동의) 센터가 됐었죠. 그래서 동네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산책 도서관에 가시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가서 마음껏 가져가시라. 그래서 이불들도 나중에 오고 하면서 생활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물건을 사실상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 구례군 차원의 지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공기관이 들어오게 된 거는 보건소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군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일지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수해 발생) 2주일 후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면담을 읍사무소하고 했었어요. 그전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는 그 골목이 비포장도로예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들이예요. 근데 물을 그때 나눠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게 피해 입은 사람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을 모르니까 ‘와서 물건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수령 할 사람들은 수령을 했다 이거예요. 알려져 수령을 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 미터 되



는 거리를 보조기를 사용해서 올라왔다가 물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게 수해 초기의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 어르신들이 처했던 게 시스템 부재 상황에 있었어요. 시스템 부재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좀 아차 싶었던 게 저희가 평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 그게 완전한 착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실하게 느껴졌었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시화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어떤 단체 등을 통해서 스스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만 스스로 대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대변해 주는가 그런 문제들이 제일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됐냐면 시스템에서 관리가 들어오면서 저희는 일 단락이 나서 한 20일 정도가 됐을 때 정리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금 마련을 한 거를 가지고 어르신들 싱크대를 교체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남은 거예요. 대변할 수 없는 자들이 보니까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수해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긴 했지만 계속 상존해 오던 어떤 문제인 거였죠.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회시스템은 약자를 먼저 돌보지 않는다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피해를 대변해 줄 목소리조차 찾기 어렵다. 시스템도 주민대책위도 구호단체도 더 큰 규모, 더 큰 집단의 피해를 우선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난은 우리가 외면하던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들의 고통을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동시에 또다시 외면하게 만든다. 골목길에 소외된 채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늘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던 사람들과 같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모모님의 문제의식은 재난 구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듯 보인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반년 정도를 덤뻐졌어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사회 수급 체제에 맹점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은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자 대상이 못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과

적으로 나중에 한 12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수해 때 복귀하실 어르신들은 복귀하시고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죽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치씩의 죽을 악양(하동군 악양면)의 이유식 공장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죽을 매주 배달을 해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 갖다 드리고 그냥 건강하신지 보고 그런 일들을 한 반년. 왜냐하면, 또 관계라는 게 응급할 때에만 가고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영유아 모임하고는 별도로 저와 어떤 선생님들 몇 분이 마음을 모아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는 수해 때 영정 사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됐었죠.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됐던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사는 어떤 영유아 엄마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약자의 자리에 매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인내해야 하는 위치거든요. 그 할머니들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좀 속상해서 더 그랬던 것도 있었죠.

수해를 겪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순간을 떠올려본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수해 당일엔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제가 8월 9일에 봤고요. 8월 8일까지는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일장 가는 길 쪽이랑 섬진강 이쪽이 다 물에 잠겨 있어서 되게 이상했죠. 매일 지나던 길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이상했죠.

그때 다들 정지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막 서로 주고받고 괜찮냐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약간 정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인지하기까지 좀 걸렸고 그때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오일장 상인연합회뿐만 아니고 거기 봉동리 이장님이 방송을 계속하셨대요.

물이 막 찬다. 그날 저희 오일장 장날이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물이 거기가 터져 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은 물건을 못 놓는 거예요. 바구니를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툭툭툭툭 이렇게 찼대요. 근데 천만다행 중의 하나였던 거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를 알잖아요. 누가 혼자 살고 막 이런 걸 아니까 구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진짜 아직도 제일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돌아가신 게 신기하다. 진짜 그 정도로 물이 빨리 찼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문을 막 뜯어서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해 이후 2년이 지났잖아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군에서는 열심히 독을 높이고 있죠. 사람들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살다가 겪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구례 사람들은 수해가 인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사실 그때 댐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댐을 열었고. 그리고 약간(수해가 또 나도)‘뭘 어찌겠어.’ 그런 느낌 자포자기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의 도덕성(사회적 약자를 먼저 구하고 배려하고, 대변하려는 노력)을 사회가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이 디테일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은 그래서 자기 구제 능력 지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국내 재난 대응과 구호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아쉬웠던 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긴급함에 대한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라도 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 구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함의 정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리스트가 있어도 전달이 안 되고 서로 협력이 안 되니까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람 따로 있고, 저소득층 돌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를 다 붙여놔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물이 막 차오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작업장이 없어졌어요.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고 있었나 봐요. 작업장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쪽으로 연결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의 관계부서들이 있는데 그들끼리만 협력해도 우선순위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례 수해 때 있었던 일 중에 외부에서 꼭 알아줬으면,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막 물이 차올라도 대야를 못 놓는 할머니를 둘러업고 그 물길을 헤치면서 여기(가슴팍에 손을 얹으며)까지 오는 물길을 헤치면서 할머니를 데려왔던 내용이나 왜 그랬는가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실 사회를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해 당일부터 지금까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수해 때문에 서로를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진짜 되게 저는 수해 때 구레가 굉장히 나름의 방식으로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할머니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회들이 많은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는 사회도 있는데 그 사회가 구레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모님의 말처럼 구레는 이웃을 위해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으로 수해를 무사히 헤쳐나간 것 같다. 누군가 따로 조직하지 않았어도 구레에는 사람들로 짜인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모모님이 독거노인들을 발견하고 구호하면서 직면한 문제와 질문들은 ‘재난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 수해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를 안긴다. 자신을 대변할 목소리조차 얻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디테일한 구호 시스템 그리고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는 예민한 감수성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갖춰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정리 / 정꽃님



## 물길도 사람길도 막힘이 없도록

정리 / 정꽃님

“한 번의 재난이 각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만 썩어 가도록 놔두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려는 노력. 공유해서 이거를 정책과 예산으로 융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태연님은 15년째 구례에 살고 있다. 지리산 학교 ‘아름다운 길 걷기반’에서 7년 동안 걷기반 선생을 맡았고, ‘섬진강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의 기획단장을 3년간 했고, 지리산과 섬진강과 한려해상을 잇는 천릿길 조성 사업의 기획단장을 4년간 맡았다고 했다. “구례에 내려와서는 길을 걷고, 길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해왔어요.” 이보다 명확한 자기소개가 있을까. 정태연님은 구례 수해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기도 하셨다. 구례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발이 넓은 이. 구례에 내려와 길을 만들고, 길을 걷던 정태연님은 아마 자연스레 구례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길도 만들고 있었던 것 같다.

수해 당일의 기억을 들려주시겠어요?

그날 산책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8월 7일 날 저녁에. 그 행사를 하고 오랜만에 여기 ‘구례 군민 극단’이라고 있어요. 이상직이라는 친구가 국립극단에서 수석 배우를 하다가 구례로 귀촌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극단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민 극단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저랑 갑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으니 술 한잔하자 그래서 장터에 차를 받쳐놓고 술 한잔했죠.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없네, 빨리 와서 차 빼가시오’ 그래.

천천히 가서 빼 오려고 살살 걸어왔어요. 걸어보니까 한 9시쯤 됐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우리 집이 봉서리니까 큰길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미 물이 막 차 있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막 다 구경하고 있고 큰길에서 안쪽으로 보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이렇게 물이 차. 아주 오만 거 다 떠다니고 그래서 차를 가지러 가볼까 좀 더 들어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물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계속 구경을 했죠.

그때만 해도 동광 사거리가 아직 안 잠겼었어요. 우리 현지 주민들이 많이 가는 동아식당이라고 있어요. 막걸리, 가오리 하는 집인데 동아집 아집이랑 나와서 아직은 거긴 안 찼으니까 축협 마트 쪽은 약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계속 공공공 불어나니까. 근데 이제 물이 계속 불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동아집도 잠기고 축협 마트도 잠기고. 거

기 사람들 보니까 전기가 물이 합선될까 봐 그런 거 다 빼서 이제 옮긴다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물이 계속 차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집으로 철수했는데 다음 날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때 이제 내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가게들은 여기 동아 식당도 그렇고 가야 식당도 그렇고 어부의 집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 양반들이 또 나중에 보상받을 때 사진 제출하거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진을 찍어봤지 내가. 그래서 아집들한테 다 전달해 줬어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휴대전화에 찍어둔 2년 전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셨다. 물이 빠지고 물건들이 마구 어지럽게 쌓여있는 거리,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차, 넘어져서 기름이 새고 있는 보일러 통...

보일러 통이 자빠져서, 그 기름 냄새가... 그때는 축협 마트 옆에서 좀 더 내려가서 오른쪽에 중앙주유소라고 있는데 아니 그때 뽕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중앙주유소가 폭발했다는 루머가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기름 때문에 사람들이 중앙주유소가 폭발한 줄 알고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중앙주유소가 터졌다 하더라고.

불안하고 어수선한 재난 상황에서는 루머도 빠른 속도로 퍼진다. 주유소가 폭발했다는 루머가 돌만큼 곳곳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악취가 참을 수 없이 심했다고 했다. 한여름 무더위에 물이 휩쓸고 가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악취가 무엇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트라우마로 남는다. 물이 빠지자마자 구레 사람들은 당장 바로 옆에 보이는 이웃들을 챙겼다.

산책도서관 올라가는 계단 밑이 단란주점이고 사장님이 또 봐주라고 해서 그때 포항에서 오신 분 두 분하고 순천에서 온 사람들 한 20명하고 그다음에 지작면(지리산작은 변화지원센터) 사람들하고 여기 청소했죠. 온종일. 단란주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소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파. 이틀 동안 물을 먹어서 엔진 톱으로 다 자르고, 일단은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동아집 가서 이제 냉장고 일으켜 드리고 뭐 좀 의자 같은 거 이렇

게 좀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가야 식당 갔다가 어부의 집 가니까 또 어부의 집은 생선구이 하는 집이라 안쪽에 방 안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가 자빠져서 생선이 썩는 냄새가…. 아주 기름 냄새에 생선 썩는 냄새에. 그래 거기 정리하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그랬죠.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 단계로 산책도서관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구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구례 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원래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 뒤인가 아무튼 굉장히 빨리 만들었었어요.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 15일 일요일인가 아무튼 그때 첫 회의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공청회에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실 이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산책도서관이 아무래도 수해에 가장 피해가 심한 곳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오기도 하고 날씨도 또 너무 덥고 그러니까 좀 쉴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저 (오일장)아집들도 좀 올라와서 쉬시고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우리가 사실 그런 용도로 뭐랄까 공유 공간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이니까. 특히 산책도서관에 몇 가지 동아리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영유아 모임 하는 최아리씨, 수수(노래하는 옥수수님), 황정란 (산책도서관)대표 또 박은주 선생 강영옥 선생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모임 같이 해왔던 멤버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돕기 시작하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머리를 알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그렇게 될 뿐이지. 행정이 또 아무것도 못 해요. 행정이 완전히 꺾다놓은 보릿자루인지 뭔지.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는 군수도 안 나왔어요. 이틀 될 때까지 군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군 의원 한 명이 나왔길래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죠.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부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은 어땠나요?

이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이러면서 내 공간을 수습한다고 들어와서 좀 약간 불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대체로 금방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게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이 땀 흘리다 보니 금방 약간 마음이 좀 통한달까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오면서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산책도서관에도 외부에서 후원하거나 무슨 성금을 보낼 때 관이나 이런 데보다 피해를 본 수재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산책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물품부터 시작해서 옷가지 무슨 그런 거 많잖아요.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셨는데 돈도 한 제 기억으로는 8천? 8천만 원 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해를 본 면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일단 좀 밥을 먼저 해 먹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싱크대를 해주기로 하고, 순천이었나 봐요. 업체에 연락해서 아무튼 견적을 뽑아보니까 스탠다드한 사이즈로 한 70만 원(한 가구당 싱크대 견적) 해서 우리가 일단 한 스무 집을 받았어요. 스무 집 받아서 아니다. 스무 집은 넘었겠구나. 그런데 냉천리 그다음에 토지의 안촌, 공소 여기 광평 이런 쪽으로는 제가 실사를 다녔어요. 싱크대를 고쳐주라고 하는데 과연 싱크대가 고장 났는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중에 실은 이장님들 추천을 받았는데 마을에 두 집 셋집씩 받았거든요.

이장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염치 불고하고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싱크대가 MDF 재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잠겨 있다 보면 그 나사 이런 데가 다 물렁물렁해져서 다 뜯어져 버려요.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장이 셀프 추천했는데 그걸 해주는 건 좀 안 맞다. 이장 말고 좀 더 어려운 사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장님들이 제일 고생하거든요. 고생하고 있으니 그럼 이장이라고 싱크대가 다 망가진 건 사실인데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근데 물론 이제 집은 이장님들이 생활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보다는 약간 좋죠. 그렇긴 해도 싱크대가 망가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죠. 약간 미묘한 문제들.

그리고 관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성금이나 물품이 어디에 누가 어떤 물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이 나서서 조사하거나 가가호호 자택 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와서 가져가라 그러죠. 그냥 어쨌든 나중에 등록된 사람들한테 임시주택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보면 어떤 재난 이런 물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 것 마냥 - 사실 또 그러기도 했겠죠. 언제 생각해 봤겠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오래 일해 봐야 한 15년, 20년 됐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특히 해당 담당 과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재난에 대비한 어떤 메뉴얼이라 할지 마인드라 할지 유관 된 기관들과 어떤 상호 협조적인 비상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된 거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직접 당해본 사람은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물난리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본다면 아마 한 사람당 한 가지씩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사실 이 작은 문척교 없애는 문제 때문에 약간 의도치 않게 차수벽 또 육갑문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작은 문척 다리는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잠겨요. 평균적으로 잠기는데 그 물이 양쪽으로 올라온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어요. 마을로. 근데 재작년에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다 보니 요새는 이제 서울의 어디 강남인가 어딘가 절대 침수되지 않게 차수벽을 설치해서 그걸 막아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는 분명히 나올 수 없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럼 방금 하신 얘기랑 연결해서 구례에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꼭 어떤 재난이 난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재난대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서울 경기도 그렇고 구례도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든 재난이 날 수 있고 그게 불이 났든 물이 났든 지진이 났든 어떤 형태가 났든지 간에 그런 재난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시선이 좀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 엄중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제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만큼 그 업보를 뒤집어쓰는 것도 저는 또 한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재난이 나면 항상 당하는 사람들이 약자들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섬진강의 물을 너무 상업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구조를 조금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데서는 지





금 섬진강이든 주암댐이든 이 물을 계속 돈벌이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저 섬진강 댐은 거기 저수량 중에 이쪽 본류대로 내려보내는 거는 평균 4.5% 정도밖에 안 돼요. 5%가 안 되고 주암댐은 3% 수준이고.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섬진강 댐에 있는 물은 전라북도 남쪽에 정읍 익산 그쪽으로 유역 변경을 해서 만경읍 쪽으로 흘러보내서 농업용수로 쓰게 하죠. 그럼 돈을 받죠. 정작 이쪽으로는 물이 안 내려와요. 여기 주암댐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주, 화순 여기 생활용수로 다 쓰게 하고 돈 받고 팔아먹고 이쪽으로는 안 내려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외형적으로는 그나마 자연인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이 계속 자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오는데 강이나 하천이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한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유지 수량이라고 하는데 유지 수량이 안 되는 거야. 유지 수량이 되게 하려면 일단 이 물의 주인이 누군가 이 물은 그 물길에 깃들 어 사는 모든 생명의 것이지. 그거를 댐을 쌓고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돼야 그 물에 대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그 물이 평소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량 이상 풍요롭게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냥 환경으로 봐야 하는데 자산화시키는 자체가 그런 시선이.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준 어떤 필수적인 재화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간의 욕심으로 그걸 개량하고 관리하고 또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물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기본 시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후 위기가 또 앞으로 더 잦은 재난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들을 좀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섬진강에 있는 모든 댐이나 이런 방죽이나 이런 게 100년에 한 번 오는 수해를 강수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놨거든요. 그것보다 더 훨씬 강화해서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재난도 대비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 거예요. 이 섬진강에 있는 모든 물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을 높이는 행위가 됐든 아니면 주요한 저지대에 배수 관문을 만들고 하는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예요. 단순히 그냥 지금은 이 부분에 수해가 났으니까 이 부분만 약간 땀방해서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좀 근본적으로 멀리 보고 어떤 도시 설계랄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최대한 모아서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 계획이나 혹은 무슨 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법을 만들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과도 맞물려 있고 당장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시절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자연 자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겸허해질 수 있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외부에서는 모든 재난이 그렇지만, 언론 보도가 끝나면 재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구례 수해도 옛날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구례에 필요한 지원이나 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터뷰 중인 우리를 가리키며)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이런 어떤 관심. 그러니까 한 번의 재난이 각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만  
 썩어 가도록 놔두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려는 노력. 공유해서 이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융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기록이,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힘이 되면서도 안타까웠다. 방송에  
 서 말하는 소위 ‘그림이 되는’ 재난의 현장들이 ‘복구’라는 이름으로 치워지고 나면 언론은 더 관심  
 을 두지 않는다. 언론이 멀어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진다. 재난 피해 당사자들은 재난이 일어난  
 ‘지역’, 혹은 피해를 입은 ‘집단’으로만 존재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는다. 하지만 재난  
 을 겪은 개개인들은 물리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를 안은 채 일상이 된 재난 속을 한동안 살아간  
 다.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너무 잘 아는 우리라서 인터뷰를 정리하는 지금도 ‘이런 거’라는 말에 한참  
 을 머물게 된다.

수해 이후 지금까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생각나세요?

제가 또 한편에서 고마웠던 건 그 장터에 있는 아집인데. 한참 끝나고 나서 구례 농민  
 회에 재희형이라고 예전에 농민회 부회장이었던 형인데 지금은 나무를 키워요. 근데  
 여기 송태웅 시인하고 구례 소식지 편집장하고 술 먹고 지나갔는데 그 형이 나를 봤어.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 아집이 그런 말씀을 하

시더라고요. 이번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장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 다 하고 애써준 게 너무 고맙다. 나는 지금까지 나하고 내 새끼들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다. 이제 앞으로는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을 좀 해볼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많이 고마운 말이에요. 외지에서 구례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개는 (귀촌한 사람들을) 약간 선을 긋고 약간은 깔보거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꺼리거나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아침이다 보니까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나도 이제 좀 내 새끼 내 가족 아니더라도 힘든 사람 옆에 이웃들 좀 보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려고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로서는 본인의 이웃이 조금 더 많아지신 거네요.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나를 돕는 내 이웃이 됐으니까.



수해를 겪은 구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보겠다고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의 쭈이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태연님을 소개받았다. 명함에는 ‘구례 작은변화 활동가 네트워크분야’라고 찍혀 있었다. 구례 사람들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신가보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정태연님은 별다른 말도 질문도 없이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에서도 도통 알 수 없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있는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외부 사람들이 왜 이것 하려고 하나 의문을 가졌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다. 인터뷰를 하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난이 각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만 썩어 가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기록을 정리하며 이 말을 오래 생각했다. 우리의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제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리/ 정꽃님

## 확고한 시스템은 무력했고 납작했던 이웃들은 다채롭게 다가왔다.

정리 / 윤정임

재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이제까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빈 곳들이 다 드러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혹독하게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좀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치를 높이는 각자도생이 재난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장 취약한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이 있어야죠.

구례를 닮은 작은 찻집에서 가슴팍에 전장연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노래하는 옥수수’ 김주혜님을 만났다. 투사같다는 첫인상이 무색하게 나긋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옥수수'라는 너네임은 무슨 뜻인가요?

옥수수는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후 사회에서 성매매여성, 성소수자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법적인 이름 쓰기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공동체 문화 속에서 옥수수라고 소개하면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모두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구례에서 산 지는 7년이 되었고, 노래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례 수해 당시에는 피해가 있었셨나요?

직접적인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있는 집이 오래돼서 배수가 잘 안 돼요. 침수는 다 되지 않았고 부엌 쪽에 약간 물이 잠겼었는데 워낙에 이웃들의 피해가 심각했으니까 복숭아뼈 정도 닿는 침수 정도면 피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가까운 이웃분들은 피해를 심하게 입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 집이나 밭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집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밭이나 상가가 오일장이 있거나 아니면 양정마을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있던 분들은 피해가 컸겠죠. 그리고 지인들 중 구례 오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도 계셨고 농사짓는 친구도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가게도 침수되고 집도 잠기고 농사를 망친 경우도 있어요.

비가 계속 오면서 이제는 큰 수해로까지 가겠구나라고 인지한 시점이 있었지요.

수해 나기 2년 전에 구례에서 기후 위기 관련한 강좌를 기획해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될지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국이나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그와 연결해서 지역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 거라고까지는 예상하거나 예지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재난을 수습하고 공동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부침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재난이 발생하고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난의 풍경을 접할 때는 굉장히 극적이고 자극적인 신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맨홀 뚜껑이 날아간다는 사람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요. 이렇게 이미지화되기 쉬운 것들이 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재난이 일어날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구례 수해가 났을 때 사람들은 물이 잠긴 동네와 구례오일장을 많이들 떠올리잖아요. 뉴스에서도 그 장면을 많이 배포했고 유튜브나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사회인사들도 그런 곳에 먼저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동네에서는 실제 가장 먼저 각 동네마다 있는 저수지들이 위협적이었어요. 강에서 물이 넘치기 전에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의 물이 넘쳐서 독이 무너지고 마을이 잠기는 것에 대한 경고 방송이 실제로 나왔어요.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초과해서 넘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마을 회관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여러 곳에서 그런 방송을 들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이제까지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빈곳들이 다 드러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혹독하게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재난으로부터 좀 더 거리가 있고 안전하다는 차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네요.

크게 보자면 섬진강이 넘치는 것 때문에 구례, 하동 그리고 섬진강 주변에 있는 작은 군 단위나 도시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구례가 있는 거죠. 수해 대책위에서 수해의 원인을 얘기할 때 기후 위기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지정해서 얘기한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댐들이 기업에서 산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커다란 도시들의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이미 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모든 댐의 문을 가차 없이 다 열었거든요.

그런데 섬진강에 있는 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50일 이상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그 용수를 굳이 끝까지 담아놔단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배출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큰 수해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와 그 물을 직접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들 때문에 댐의 물을 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것도 잘못된 때인 바다가 만조일 때 물을 풀어서 결국은 그 피해가 섬진강 하류인 하동과 구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건 도시 대 시골, 기업 대 농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드러내게 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방을 높여서 수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그 제방들도 실제 처음 설계했을 때의 예상을 넘어 이미 잘못 설계되고 부실 공사했던 것들이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방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막지 못하고 뚫리면 한꺼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져요.

그 때 구례는 댐에서 한꺼번에 물이 내려왔고 만조 때라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거지요.

그래서 구려 분들이 이게 인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군요. 수해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복구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재난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면...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불공정하게 혜택을 많이 본 사람도 있는 거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기존에 낡고 허술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을 보수하는 걸로 재난 복구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보에서 배제 되어 그런 지원과 복구와 관련된 정책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서 계속 배제된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피해 상황들을 촬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다녔던 도로가 바다같이 변했으니까 일단 아연실색해서 그때는 모두 사진을 찍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풍경이 없어지고 물 밖에 안 보였으니까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 제 친구 오일장 가게에 갔을 때부터예요. 가게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이 빠지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집기들이 망가지고 물건들이 쏟아지고 음식 재료들이나 이런 게 막 나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에 알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친구가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게 있죠.

그 이후에도 1인 가구로 혹은 2인 가구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 오일장 주변의 어르신 집을 청소하고 실링하고 쌀이나 먹거리를 드리는 활동할 때도 계속 찍었어요. 그분들의 사정을 주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자료들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들고 물이 어디까지 잠겼는지, 벽이 모두 물에 젖고 악취가 심해 집 안에서 잘 수가 없다든지, 살림하고 이불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이분들을 임시 대피소로 모셔야 하는데 자동차나 같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산책도서관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기대를 한 게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대나 생각보다 기민하게 움직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공공 기관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1인 가구나 2인의 어르신 가구 같은 경우 사실은 재난 전에 경고 방송이 나올 때 그분들을 좀 미리 방문하고 실제로 대피소로 모셔가고 설득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변 이웃들이나 가족의 돌봄 체계 없이 무작정 대피소로 갔을 때 이분들의 어려움을 따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배치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어르신들은 휴대폰이 없고 집 전화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누군가가 대신 받거나 연결해주는 일, 아니면 그분들이 일시라도 재난 지역인 구레 밖에 있는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찾아 주는 그런 걸 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이 올 때는 물이 그냥 넘치는 거 외에도 굉장히 연쇄적이고 연속적으로 시스템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

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들도 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부실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부실함이 드러났을 때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이후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듣고 실태 조사를 같이 해야죠.

물리적 피해나 아니면 마음에 입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예산들이 군 예산으로 안 된다면 돈은 국가의 구체적 예산 항목으로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걸 기대했던 거 같아요.

우리는 재난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만 경험해보면

그 과정에서 연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군요.

코로나19 감염병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재난 속에 있지 않은 거지요. 앞으로 예정된 재난들도 예측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떤 재난이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것이고 홍수나 산불, 폭염, 지진 이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이 이중 삼중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닥쳐올 거라고 이미 30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현재 과학자들을 비롯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미리 경고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기후 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이 기후 위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배경에 있다고 보는데요. 지구나 혹은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런 게 잘되지 않는 이상 재난은 더욱 과증될 것이다. 기후는 계속 이렇게 변해갈 거고, 그것으로 닥쳐오는 재앙들의 실질적 국면은 결국은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된 것들이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제 재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그런 것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레 읍내가 다 잠겼을 때 우리 중 누군가가 혹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



으며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원들은 누구에게만이 먼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할 수 있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좀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치를 높이는 각자도생이 재난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장 취약한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이 있어야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체에서 공평한 자원 배분이 있었으면 사실 그런 재난들은 이렇게까지 큰 타격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지 않을 거 같아요. 사람들은 어찌어찌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빗을 내서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많은 지원금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빌어 낡은 집을 새로운 집으로 올렸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낡은 집도 새 집도 없이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으면서 더욱더 극심한 불평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난의 실질적 내용이 될 거라고 기후위기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홍수 한 번의 결과일 뿐이지만 이런 재난들이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경계와 혐오 또 더 심하게는 전쟁까지 우리가 직접 기후 위기를 일으키진 않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재난을 만드는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후 위기의 핵심적인 위협 요소이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고했던 과학자들이 기후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재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재난을 통해서 드러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이 시스템의 문제들을 인식해야 하는 거지요.

재난대응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늘 주고받던 우리의 말을 옥수수님의 입을 통해 들었다. 재난당사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 ‘재난 불평등’, ‘사람을 연결하는 재난대응’ 답은 언제나 문제보다 먼저 우리 앞에 와 있었으나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데 항상 느리고 늘 어리석다.



구례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챙기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대피소로 가지 못한 1인 가구들을 돕는 일을 같이하게 됐어요. 영유아 모임을 하는 분들이 구례 안에 있다는 것을 재난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집이 완전히 침수되고 물이 빠진 이후에도 악취가 심하고 도저히 지낼 수 없는, 집이라고 하기도 그런 곳에서도 떠나지 않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라고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일단 대피소로 가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1인 가구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대피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피소로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사실 노인분들은 거의 다 병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치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과정 안에서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런 대피소 같은 곳에서 통제를 당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대피소가 대책이 되지 못했고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그분들이 그 집에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지키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했는데 관공서에서는 그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재난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과 관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피소에 와야 어떤 지원이 있다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호와 복구의 루트를 따르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았죠. 틀 안에 들어

오지 않으면 정보에서 모두 배제돼요.

예를 들어 지금 대피소에 가면 빵과 음식을 주고 선풍기도 주고 이런 정보들을 모든 사람한테도 공평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늦게라도 와서 받아 가실 수 있죠. 그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그런 정보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 더운 여름에 악취도 심한데 그냥 그곳에서 이웃들이 나누어 준 이불과 어느 마을에 물이 나오는 지하수에서 떠온 물로 생활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옛날 지식이죠. 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 물이라도 떠야겠다 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타고 가서 물을 떠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소방차도 순천에서 오고 해서 물을 받아서 썼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버틴거죠.

그 당시 전국에서 보내온 물품과 생수가 군청 마당에 쌓여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제 때에 지원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찾아갔는데 수해 입은 걸 증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 증명이란 것도 저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지만 어르신 분들 중에는 휴대폰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낯선 저한테, 처음 보는 저한테 사정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찍어서 줘야 선풍기도 주고 제습기도 주고 이불도 준다는데 내가 찍을 줄을 몰라 가지고... 그것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내라는 데... 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불평등이죠.

정부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건 실제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차 방송했다. 안 온 사람 책임이다.’라며 그분들이 안 왔다는 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못 온 거고 안 온 거다. 그리고 얼마나 간편하냐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건 그분들이 마치 게으르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편하게 자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영유아 모임 분들을 시작으로 문제를 인식했어요. 이분들이 고의로 혹은 게으르거나 해서 앓아가지고 뭘 받아먹

졌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란 걸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살았던 안에서 자원을 얻고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루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제가 처음 경험한 재난의 모습이었죠.

현장을 경험한 재난당사자로서 외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하는 장면들 있으실 거 같아요.

그 커다란 물에 잠긴 읍내의 모습도 충격인데 그건 사실 좀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건...

제가 있는 집이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농가주택인데 많은 집들이 아직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하죠. 근데 어느 순간 비가 계속 내리는데 여기가 수영장처럼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마당인데 물이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땅에 비가 떨어지면 항상 물이 어디론가 흘러 나갔는데 이 물이 밖으로 안 나가고 너무 신기하게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한국전력 앞까지 물이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 앞에 물이 차지? 그것도 내가 사는 집 안에... 근데 그때 보니까 저와 같은 농가 주택들이 임시로 배수로를 다 해놨기 때문에 토사에 막혀서 물이 안 나가니 정말 나는 섬진강 물이 아니라 내리는 비가 안 빠져서 그것 때문에 수해를 입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런 집 되게 많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집은 배수관이 경사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물이 나가는데 다른 집들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어요. 이제 좀 무서워서 밖에 나가봤더니 배수관 하수도에서 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아~ 이게 섬진강 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섬진강 물이 안 넘쳐도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가 이런 구조의 집에 사는 이상 언제든지 수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이번 서울에서도 도림천이 차오른다고 사람들이 도림천만 쳐다보는데 당해 보면

자기 집에 있는 하수도가 범람하면서 수해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지요.

구레도 그렇고 탄 곳도 그렇고 다들 또 섬진강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분일 뿐이

에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를 뚫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전혀 자급자족이 안 되고 물도 끌어오고 전기도 끌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는 사회적 에너지 시스템 토대 자체가 이런 재난에 완전 무력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난의 시대는 이런 토대들이 무력해지는구나 그럼 앞으로 준비할 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복구가 아니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고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던 거 같아요. 사실 전기 없이 상수도 공급 없이 일 주에서 이 주를 보냈죠. 그러면 이제 다 무력해지죠. 우리가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명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어진 기간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전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제방을 올리고 섬진강 바닥을 긁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방 내 화장실과 우리 집 개수대에서 물이 넘쳐서 내가 식사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와 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일주일엔커녕 단 3일도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이런 재난들을 대응하고 서로 돌볼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섬진강 제방을 높이고 바닥을 긁고 이런 걸로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특히 앞으로 올 재난의 크기와 규모와 기간은 점점 크고 길고 막대해 질텐데요.

수해 이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기후 재난의 형태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수해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을까요?

처음에 기후 위기 얘기할 때는 항상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어요. 기후 위기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기후 위기 관련 강좌를 지역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기후 위기란 말을 하세요?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 강의가 지금 더 시급하며 기후 위기는 지구 온난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항상 있

었던 일이고 오존층 파괴도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재난 이후에는 그분들이 새롭게 이해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인재이긴 한데 그 인재가 드러나게 되는 배경에는 지구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지구가 그렇게 변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에너지 산업시스템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기후 위기 담론이라는거죠. 이걸 미세 먼지나 오존층 파괴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르고, 지금 우리는 임계점에 와 있으며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더 이상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지역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기후 위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형태로 오지만 그게 드러나는 현상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드러난다. 우리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모순들이 극대화되어 인재의 양상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보다 농민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하세요. 특히 수해 이후에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봄과 여름 사이의 기후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과일 냉해도 많고 별들도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는 농민분들이 오히려 더 이걸 환경 문제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기후위기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그룹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어머니 그룹들인데 수해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재난을 더 빨리 더 혹독하게 경험할 거라는 것을 완전히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시게 된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후 위기 캠페인 하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했다가 구례 수해 이후에는 거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기후 위기 관련 강의나 수업을 같이 계획을 해서 하자는 거지요. 물론 때맞춰서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조금 크게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 자체가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주에서 지진을 겪고 난 뒤에 한동안 지진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있었던 게 생각났다. 이미 지진은 지나갔는데 지진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 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었고 어디 보다 앞서 지자체에서 일상 회복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나 그 후 1년 동안 60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일상을 견디고 있었다. 아픈 기억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진 이후 우리는 삼국사기에 경주 지진의 기록이 200여건이나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옛날부터 지진을 겪었던 곳에서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재난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에는 수해를 기억하는 거 자체를 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 수해를 잊자 이런 건 아닌데 관의 입장은 수해를 극복했다는 서사로 이어 가는 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영웅서사처럼 마치 우리 구례 주민들이 푹푹 뭉쳐서 이걸 극복했다라는 식으로 미화하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같이 했다는 뉘앙스로 심지어는 지방 선거를 할 때 써먹기도 했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극복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꼭 꼭 눌러놓고 마치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이 하면 우리 이웃들 중에 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고 분노가 쌓이고 이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그거를 잊지 않는다는 게 그냥 기억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기록하고 정의롭게 기억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누가 이것에 책임이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치고 그 책임자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누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게 필요하며 어디에 예산을 배치하고 등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먼저 얘기하고 좀 강력하게 공동체에 제안하는 게 저는 정치 지도자나 공동체 대표자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공동체 대표자들은 빨리 극복 서사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 극복 서사 안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묻혀지고 얘기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빈 곳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를 덮어두고 이런 방식의 복구나 극복 서사에 집중하면

이 빈 곳은 그대로인 채로 또 재난이 닥치면 또다시 빈 곳이 드러나겠네요.

특히 그게 너무 끔찍한 거 같아요. 분명히 내 이웃들 중에는 여전히 지진 때문에, 수해의 고통 때문에 이전에 일상은 고사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극복됐다고 그러면 고립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필요하죠.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 때 우리 힘내서 그래도 장사할 수 있게 같이 치웁시다 흠도 걷어내고 냄새나는 진흙들도 씻어냅시다 힘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진흙 구덩이 악취의 기억 속에서 마음이 못 빠져나온 분들이 계시죠. 진짜 조그마한 집 하나 있던 거 물에 잠겨서 허물어야 했는데 새로 올릴 돈이 없는 분도 지원금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고 친척 집에 의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시 거처도 2년 기한이 다 되어 나와야 되는 너무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극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난이 발생한 그 순간은 자연 재난일지라도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고

인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전보다 재난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막대하기때문에 이전보다 더 고립되고 극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숫자로 따지는 게 뭐하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 재난 속에서 재난의 재생산 안에서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같기는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재난이나 수해를 겪어보지 않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재난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고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쌓이고, 재난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재난에 대한 목격자이자 관여자라는 거죠. 그냥 그 뉴스 안에 보여지는 사람만이 재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죠. 우리 모두가 그 재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난을 겪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광경이 다 재난이거든요. 세월호도 재난이었고 경주도 재난이 있었고 그런 재난들로 내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는 당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과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나는 어디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 주변에 무엇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를 그 안에서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고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소중한 경험이며, 우리가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해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고마웠던 사람 있으실 거 같아요.

당연히 그냥 내 이웃들이었어요. 정말 그전에는 내가 그냥 밥 사 먹고 인사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산책도서관에 와서 물건을 배분하고 있고 반찬도 필요한 데 가져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공동체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납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는 갑자기 그 순간에 되게 다채로워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끼게 됐어요.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굉장히 확고하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안전 시스템이 웃긴다 되게 허술하고 정말 무력하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점검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만한 게 없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뭐 그 분은 어떤 일을 했었고 장사를 했다. 아이 키우느라고 요새 뭐 하고 있지 밴드도 못하시고 얼굴도 못 보는 약간 이 정도였는데 그 이웃 사람들을 좀 재발견하고 나도 그거에 대응하느라 스스로도 재발견이 돼요. 또 그 와중에 개나 소 등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긴 한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물들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내가 사는 곳을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난을 겪으며 공동체 구성원을 새롭게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구례 오일장에 서 잠깐 스치듯 만난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구례는 복 받은 동네여. 그 큰 물난리에 사람이 하나도 안죽었잖여. 땅도 사람도 복 받은 동네 제.” 사람이 복 받은 동네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걱정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만나 구례를 복 받은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수해 현장에서 다른 이를 돕는 이웃들이 다채로워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응하다 보니 나도 재발견되더라는 옥수수님의 말속에서 사람의 선한 의지에 대한 작은 믿음 같은 게 엿보였다. 우리는 복 받은 땅 구례에서 복 짓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리 / 윤정임



##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 정꽃님

---

“재난이 나면 영웅들이 나오고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다음에도 누군가 그 역할을 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 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배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신문사의 영상 기자로 재난현장 취재를 하던 이동환 이사는 2016년 국제재난구호단체인 피스 원즈재팬과 연이 닿아 일본의 재난현장을 기록하게 된다. 같은 해 구마모토 지진 기록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어나는 재난현장의 영상 기록을 맡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팟코리아의 상임이사이자 재난 구호 현장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으면서 재난현장에서 카메라를 잡는 시간보다 재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다.

#### 에이팟코리아는 어떤 단체인가요?

에이팟코리아는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전 세계 재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가장 많습니다. 매년 태풍도 많이 오고 환태평양 조산대 때문에 지진도 많이 오고 재난은 늘 나는데 매번 처음인 것처럼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실제 재난이 왔을 때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협약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서로 얼굴을 익혀놓는 거죠. 실제 재난이 났을 때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현재 에이팟코리아는 재난 대응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호 사각지대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자 지원이든 심리지원이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빠른 결정과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팟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까지 6개국의 연맹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면 각국의 NGO·기업·정부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펼친다.

#### 재난 구호 단체가 모든 재난 지역에 갈 수는 없을 텐데요. 구례 수해 현장에 에이팟코리아가 들어가는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구례 같은 경우는 저희랑 MOU를 맺고 있는 생협도 있었고, 자연드림파크도 있고 해서 밀접하게 연락을 하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했죠. 왜냐면 뉴스에 나오는 건 읍이

다 잠겼는데 실제 이재민이 느끼는 것과 뉴스에 나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기는 수해가 그 중심부를 다 덮쳤기 때문에 무조건 그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에이팍코리아 구호가 들어가게 된 거죠.

수해 이틀이 지나서 구례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은 오일장이 다 잠겼다가 물이 빠진 상태였는데 재난이 나면 항상 중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시각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구례 같은 경우는 오일장과 양정마을이었던 거죠. 양정마을은 소들이 헤엄쳐서 화엄사까지 가고 지붕 위에 있고 이런 사진들이 많은 국민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오일장은 장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물건을 씻고 그러고 있었고 양정마을 같은 경우는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축사가 거의 중심이 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섬진강 인근에 있는 양정마을 같은 경우는 좀 흉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재산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반 마을들은 자기 집에 가재도구를 다 꺼내놓고 말리고 빨래를 하고 그런 것들인데 들어가서 물어보면 한숨도 쉬고 하긴 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산 피해를 본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재산피해는 저는 거기에 플러스알파 이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정마을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사실 취재진이 왔을 때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소가 몇백 마리 떠내려갔다, 죽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걸었을 때도 ‘왜 물어보냐, 뭐 도와줄 거냐, 정부에서 왔냐, 얼마 재산 피해 입었는데 뭐 할 거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욱 돌아보면서 마을마다 조금 다른 상황들을 파악했었죠.

상황파악 이후에는 어떤 지원들을 준비하셨나요?

읍내에 한창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씻지를 못하시는 상황이 보였어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제 목욕을 못 하고 있는 게 파악이 돼서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았는데 목욕탕이 한 개가 잠겼어요. 목욕탕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잠겨서 나머지 두 군데를 전화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쿠폰을 만들면 얼마까지 목욕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됐으면 읍내에서 그냥 쿠폰을 다 뿌리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뜨거운 물에 좀 씻고 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하려고 했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전체 지원으로서는 사실 필요가 없게 돼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멈추게 되었고요. 이재민 대피소를 가면서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8월이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계절인데 대피소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때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회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자연드림파크에 목욕 공간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해에 땀도 많이 흘리는데 씻는 게 어려워서 목욕도 정기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고, 식사를 도시락 먹고 계셨는데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결정해주셔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자연드림파크까지 움직일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버스도 준비하시고 이재민들을 안내할 직원들도 배치하고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드림파크도 뒤에 산이 무너지면서 좀 피해를 입었고 직원들도 집이 침수되거나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구례섬지아이쿱 이사장님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오성수 대표님이 매일 대피소와 오일장을 오가시면서 수해 피해 지원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오일장에서는 매니저님과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일장 매니저님하고 라포(\*의사소통 상대방과 형성되는 신뢰관계) 형성을 하는 데 시간을 들였죠. 매니저님이 오일장 (수해 복구 진행)에 어느 정도 (지휘)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반나절만 해봐도 ‘우리 장갑이 없다. 소모품들이 없다. 옷이 없다’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 공무원이 와 있어도 ‘우리 장갑이 없는데 목장갑 백 개만 사주세요’ 해도 공무원이 사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부금, 성금 이런 게 하루 이틀 만에 모여도 당장 공무원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실제 이게 수습되면서 필요한 그런 돈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박카스 하나씩 사주고 싶은데 그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사비를 들여서 음료수를 몇백 개를 사놓고 할 수 있어도 그게 며칠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나 회장님한테 ‘뭐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처음에 얘기하는 건 되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장갑이나 뭐 장화 이런 것들이죠. 그때 이제 연락처를 주면서 필요한 걸 물어보고 바로 사다 드리면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막 수습하면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만만 얘기하는데 필요한 걸 가져다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건들은 오죠.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것들이 오는 거라서 지금 현장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은 이분들한테 되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드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그 이후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검은 봉지 큰 거 이백 개만 갖다 주세요’ 이런 요청이 오는데 저희 말고는 그런 요구를 전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선 그분은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저녁에 가서 또다시 대화 나누고 오늘 어떠셨냐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내일은 더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얼음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편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또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일장에서는 매니저님하고 소통하고 양정마을에서는.. 양정마을 같은 경우가 축사들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치워야 하는 날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다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동물 사체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온 자원봉사자들은 예를 들면 가정집 물건 빼고 뭐 설거지나 빨래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양정마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들이 왔다가 반나절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결국은 군인들이 다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얼음물을 매일 아침 공수해드리고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필요한 소모품들이 나오잖아요. 티셔츠 같은 거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는 티셔츠가 필요한데 저희한테도 반소매 티가 몇백 벌 좀 들어와서 그것도 가져다드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는 거죠. 양정마을 이장님이랑.

그리고 자연드림파크에 있는 분들은 구례 출신들이 있으시니까 구례 출신인 분들이

이제 각 마을의 이장 아니면 청년회장들 연락처를 갖고 계시고 다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고, 자연드림파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저희가 비용을 대야 하는 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열흘 정도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초반에 가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걸 좀 잡아 드리는 역할인 거 같아요. 지역 내 네트워크에 혹시나 막힌 곳이 있다면 혈을 뚫어 주는, 혹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필요한 소소한 장갑부터 뭐 티셔츠 이런 것들을 드린 다음에는 외부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니저나 회장님이 알려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분(외부 지원)들을 저희같이(에이팍코리아가 지원했던 방식처럼) 활용하는 거죠. 뭘 갖다 준다고 하면 ‘그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재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초반에 그분들한테 자신감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현장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현장에서 계속 그런 걸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거길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구례 오일장 상인회, 산책도서관에 모인 시민들, 자연드림파크, 그리고 각 마을 이장들까지 구례 안에는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마음들이 있었다. 에이팍코리아는 각각의 리더들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외부 자원을 구례 안으로 연결하며 상황이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구례에서는 민간차원의 재난 구호가 워낙 신속하게 잘 이뤄지다 보니 공공 기관의 구호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빈틈이 더 선명하게 보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례 수해 때도 물품 배분이 정말 필요한 초기에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걸 올진 산불 때도 느끼고 앞으로 다른 재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자 배분을 관에서 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판단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 상 지자체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



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해요. 사고대책본부든 정부든. 이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산불이 나면 그 지역 소방서장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 출신이고 알고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에 전화하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중대본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했을 때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게 오면 물을 배분하는데 현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배분하는 걸 실무자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재민이 특정됐느냐, 이재민 조사부터 하는 거죠. 이재민 특정을 한다는 게 구례 이재민이 천 가구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재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초반 시간을 다 써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야 하고, 파악이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공적인 구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돌아봤을 때 구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뭡까요?

저희가 이재민 중에 500가구 정도를 아름다운 가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은 1000가구 중에 어느 마을에 드려야 좋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초반에 뭐 양정마을이나 이렇게 좀 많이 언론에 나가는 곳들은 4일째 5일째 되면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몇 명밖에 없는 마을은 아예 아무도 안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숫자가 있는 곳부터 꾸러미를 지원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강 건너에 있는 집에 갔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누군가 와준 게 처음인 거예요. 그 집 하나만 떨어져 있고, 혼자서 치우고 계셨고 그분한테는 사실 물건이 뭐가 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이렇게 먼 지역에서 나를 걱정해서 왔다는 거에 많은 위안을 받으신 거 같아요.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니깐 ‘그래도 나는 집 다 괜찮다 안 죽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시는데 그분 얼굴이 좀 기억에 남죠.

영유아 모임의 최아리님이 뒷골목에 혼자 있는 할머니들을 발견했듯이 시내에서 외따로 떨어진 집들, 거주 인구가 적은 마을들은 구호 사각지대로 남기 쉽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공적인 구호 인력과 자원들 역시 그런 곳에 먼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환 이사는 외부에서 잠시 지원하러 들어가는 자원봉사자나 구호 단체보다 마을이나 단체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재난 리더로서 더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리더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양정마을 이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한집이 대피를 안 하더라고요. 이층집인데 1층이 잠겼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서는 ‘나는 대피 안 한다,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2층까지 차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또 괜찮다고 말한 거야.

근데 소방서에서는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다 잠기니까 전봇대 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보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서. 전봇대만 있는데 전기선 건드리면 안 되고 도로가 없잖아요. 물이 찬 상태인데. 그래서 이장님이 소방 보트를 타고 그 밤에- 그래서 자기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이거 안 가도 되는데 우리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밤에 라이트 켜고 소방관 보트 타가지고 저 고집 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리더잖아요. 그분 아니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 리더들이 요번에 상처 입고 했을 때 저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든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누가 이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희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번에 상처 입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고 상처가 되셨을까요?

우선은 이장님들은 언론사들이 다 찾아오고 관에서도 그렇고 다 이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보상부터 해서. 근데 이장님 자체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만족



시킬 수가 없잖아요. 마을 피해 본 사람 100가구면 100가구 중에서 뭐 과반수든 뭐든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간혹 오해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들은 상처를 무조건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이장님이 내가 뭐 받는 것도 없고 한데 내가 욕먹으면서 앞에 나서서 이럴 필요가 있냐. 번아웃이 무조건 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연락이 두절 되든 잠수를 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참고 참고하다가 결국은 다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재난 관련해서 마을 안에서도 어쨌든 전국 지역의 재난대응체계인데 이장님 한 분한테 너무 몰려 있는 거 같아요.

오일장 회장님은 집이 잠겼어요 다. 근데 사람들 다 대피시켰고 집이 잠기는 건 그냥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남는 게 있나요. 나중에?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들 거고. 왜냐면 그러면서도 그 회장님한테 불만만 말하고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재난이 나면 영웅들이 나오고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다음에도 누군가 그 역할을 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배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게 근데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비상근이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인 기부금을 그런 데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자원봉사만으로는 안되는 지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생기는 재난은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마을 단위 리더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이쿱 생협의 재난 대응 위원회 연수 때문에 다시 연락을 드리고 갔는데 양정마을 이장님, 그리고 자연드림파크 대표님, 섬지 아이쿱 이사장님, 오일장 매니저, 회장님 이렇게 다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가고 나서는 ‘아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대화해 보고 느낀 거는 어제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세요. 이분들 마음속에는 그 순간순간의 필름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어쨌든 그 역할 안에서 나서 가지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위안해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은 없었구나! 그동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토해내듯 말씀하시는 게 그때 대한 것도 있지만 이후의 서운함이 계속 묻어나거든요. 사람들에게 대한 서운함. 내 생각 같지 않은. 오일장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정치하려고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였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도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결국은. 저희도 열 명 중에 진짜 한 여섯 명만 고맙단 얘기 들어도 보람을 느낀다고, 진짜 한두 분은 무조건 ‘이런 거 필요 없다, 가지고 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아 진짜 그러냐’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주고 받아요. 그런 대화가 이제 서로 비슷한 경험과 입장에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일장 분들이 그 이후에 울산 태화강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수해 입은 분들한테 모금해서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일장 상인회도 다른 재래시장에서 모금된 돈을 꽤 받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앞으로 무조건 모금을 열어서 할 거라고. 근데 회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500원도 아까워하시는 할머니가 있대요. 모금한다고 방송을 했더니 그분이 몇만 원을 냈다고. 이리로 와 보라고 하더니 그 돈을 쥐서 되게 뭉클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도 다들 도움을 주고받는 일의 중요함 그런 걸 느꼈구나.

절실할 때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쉽게 잊지 못한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한다. 구레 사람들은 수해 이후 복구가 한창인 시기에도 다른 지역의 수해와 산불 피해 등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 수해 이전에는 나 사느라 바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먼 타지의 일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쓰는 돈 500원은 아까워도 모금에는 몇만 원을 내는 것. 재난의 경험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이동환 이사는 국내외 재난 구호를 다니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끼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그중 하나는 구호 물품의 빠른 배분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구호 물품을 받지 않을 권리.

구호 물품이 제때 배분되는 일만큼 이재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필요 없는 물품은 받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물품을 다른 저소득층이나 그 물품들을 모아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재난이 많아지니까 ‘이 물품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필요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품은 뭐 구레 때도 그랬지만 여러 체육관에 쌓여 있는데 이걸 결국은 공무원은 다 나눠 줘야 하는 거고 이재민은 다 받아야 하잖아요. 울진도 아이들 용품, 스타킹 이런 것들이 어르신 집에 가 있습니다. 그냥 막 넣어서 어쨌든 지금 다 배분한 거죠. 이재민분들이 그래요. ‘도움을 받은 건데 버리기는 뭐하고 일단 모아놔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빈틈으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안 받을 권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수해 1년 뒤에 가시고 나서 '계속 재방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분들이 앞으로도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임명하든 해서 재난 리더 역할을 계속하실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재난을 겪고 했을 때는 많은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구례에서 사실 수해가 아닌 지진이 났다고 해도 똑같이 그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역할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별 게 아니다'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아니라고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민분도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더 힘들 수 있을 때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언론에서 그 이후에 잠깐씩 나오는 미담 기사에 작게 나는 분들이 전부인데. 실제 들어가서 얘기 나눠 보면 다거든요. 마을 리더들은 다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이슈가 된 분들 말고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걸 짚어주는 것들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나도 다른 지역에서 났을 때도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짚어주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재난 이후에 긴급 구호도 있지만, 커뮤니티를 재건하고 다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진에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 이동환 이사는 울진으로 달려갔다. 소방관들조차 방진 마스크와 먹을거리가 부족할 만큼 급박한 현장을 다니며 당장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 긴급 구호를 시작했다. 이후 산불이 진화되고, 피난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임시 주거 시설에 입주하고, 뉴스에서도 더는 언급하지 않을 때쯤에도 이동환 이사는 울진에 있었다. 에이팃코리아는 일상 회복을 위한 물품 지원과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재민들의 심리 지원을 산불 이후 100일간 지속했다.

우리도 물품 배분 활동을 지원하러 번갈아 울진에 갔다. 200가구에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데 산 밑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다 보니 10가구를 배송하는데 반나절이 흘렀다. 물류비, 인건비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지해 구호를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청으로 전달되는 물품은 쌓여 있다가 폐기되거나 (울진에서는 15t에 달하는 구호 물품이 폐기처분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차도 없는 어르신들에게 10여 종에 달하는 물품을 와서 가져가라고 문자 통보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긴급할 때는 물품이 배분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인력이 없어 전국에서 보내온 마음들이 폐기 처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현장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역의 재난 리더들을 좀 더 공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동환 이사의 말에 강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구례에는 많은 재난 리더들이 있었다. 그 엄청난 수해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증거다.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으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 만나게 된 모든 이들이 구례의 재난 리더들이다. 결국,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정리 / 정꽃님

##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재난대응

‘현관앞비상배낭’은 재난피해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경험한 후 일상 속 재난대응의 중요성과 재난 이후 회복과 정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고, 재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상 속 재난대응,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 교육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 속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현관앞비상배낭’은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구개발로 일상 속 재난대응을 돕습니다.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건도 사람도 잊히지 않는다. 이 책은 구레 수해를 되돌아보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재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화살표다. 꼼꼼히 읽고, 물려드는 강물과 그 속에서 함께 살고자 애쓴 이들을 떠올려보자.

- 김탁환(소설가)

우리의 ‘기억’은 고정화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라는 현재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의미는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가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구성할지는 당사자들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제안을 경청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재난에 대한 공동체적 지혜와 역량은 재난 이전보다 더욱 커져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랜 기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기록한 책의 마음과 내용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멤버 / 심리사회지원활동가 신정식

## 현관앞 비상배낭

이 책은  작은변화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